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A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A STUDY ON PASTORAL TRAINING IN THE MISSIONAL
ENVIRONMENT OF NEPAL: WITH REFERENCE TO
BARNABAS TRAINING**

written by

Seung Jae Yoo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ntor: Keon Sang An, PhD

April 2018

Date _____

**A STUDY ON PASTORAL TRAINING IN THE MISSIONAL
ENVIRONMENT OF NEPAL: WITH REFERENCE TO BARNABAS
TRAINING**

네팔 선교 환경에서의 목회자 훈련에 관한 연구
-바나바 훈련을 중심으로-

By

Seung Jae Yoo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April 2018

ABSTRACT

Yoo, Seung Jae

2018

“A Study on Pastoral Training in the Missional Environment of Nepal: With Reference to Barnabas Training.”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02 p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propose Barnabas training as a training method for understanding the changing mission environment of Nepal and as a tool to train pastors in Nepalese churches. To fulfill this goal, 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mission environment and the changes in the mission environment in which the Nepali Church is located? Second, what is the image of a pastor in the changing environment in the Nepalese church? Third, how can you evaluate the ministry of Barnabas training in Nepal's missionary reality? Fourth, what can Barnaby training contribute to nurture pastors in the Nepalese church?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help to reac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6 chapter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the importance of the goal and the research, the key questions and questions of the research, limitations of the research, definitions of terms and research methods. In Chapter 2, we will look at general overviews and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Nepal, and then look at the changes in the new missions environment in response to changes in Nepal's early mission history and political system. In Chapter 3, we will look at the pastoral aspect of Nepal mission environment from a biblical and pastoral point of view. Chapter 4 provides a brief description of Barnabas training and explains the application of philosophy, core values, training courses, and Barnabas training, and assesses the situation, culture, training methods and content of the participant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hapter 5 proposes a new direction for individuals, church areas, and training methods for Barnabas training suitable for the Nepalese mission environment, and conclusions are made in Chapter 6.

This study suggests how Barnabas training can help nurture pastors who lead the Church and the believers to continue to live as mature Christians to preach the gospel in a changing Nepalese mission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Barnabas training will develop into a holistic integrated minister training, and will be utilized to train the Nepalese pastor to grow into a pastor with mission and qualifications and devote himself to the salvation of Nepal.

Mentor: Keon-Sang An, PhD

354 words

개요(ABSTRACT)

유승재

2018 “네팔 선교 환경에서의 목회자 훈련에 관한 연구-바나바 훈련을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02 pp.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을 이해하고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방안으로 바나바 훈련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먼저, 네팔 교회가 놓여있는 선교 환경의 변화와 선교적 필요는 무엇인가? 둘째,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셋째, 네팔의 선교적 현실 가운데 바나바 훈련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넷째, 네팔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바나바 훈련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 장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목표와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핵심 문제와 질문들, 연구의 제한들과 용어의 정의와 연구 방법이 제시된다. 제2장에서는 네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개관과 정보를 살펴본 후, 네팔의 초기 선교 역사와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선교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네팔 선교 환경에서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을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관점에서 고찰한 후 새로운 선교 환경의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바나바 훈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철학과 핵심 가치, 훈련 과정 및 바나바 훈련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동안 진행된 바나바 훈련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참가자의 상황, 문화, 훈련 방법 그리고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네팔 선교 환경에 적합한 바나바 훈련을 위해 개인과 교회 영역, 그리고 훈련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제6장에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바나바 훈련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바나바 훈련은 전인적인 통합 목회자 훈련으로 발전하게 되며, 또한 네팔 목회자로 하여금 사명과 자질을 갖춘 목회자로 성장하도록 훈련하고 네팔의 구원을 위해 정진하도록 할 것이다.

Mentor: Keon-Sang An, PhD

354 words

헌정(DEDICATION)

이 논문을 사랑하는 아내 정희에게 드립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폴리 신학교에서 수학한 지난 시간은 네팔에서 보내온 15년 시간의 발자국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 갈 길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안식년의 시간 동안 폴리 신학교에서 학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서울수정교회, 그리고 네팔선교부 동료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나바 훈련을 통해 네팔의 목회자들로 하여금 세계비전을 바라 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한국 바나바 훈련원과 이강천, 김정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 교회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동역하는 사랑하는 네팔 목사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업 조차 낯설어 하던 선교사를 논문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신 안건상 교수님과 폴리 신학교 식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의 시간을 보내 주신 어머니 김양남 전도사님과 장인 장모님, 언제나 남편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 준 아내 정희 선교사,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강현이와 성현이, 세현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로 살아 가는 동생을 언제나 응원하여 주었던 사랑하는 형님 고 유만재 안수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vi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i
목차(TABLE OF CONTENTS).....	viii
표 목록(LIST OF TABLES)	xii
지도 목록(LIST OF MAPS)	xiii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4
연구의 목표	4
연구의 중요성	4
연구의 핵심 문제	5
연구의 질문들	5
연구의 제한들	5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방법	6
요약	6
제 2 장 네팔의 변화하는 선교 환경.....	8
네팔 개관	8
면적과 인구	8
지리적 위치	9
종족과 언어	9
경제	10
정치	11
종교	12
네팔의 초기 선교 역사 및 선교 환경의 변화.....	12
카푸친 수도회	12
절대 왕정제	14

입헌 군주제	17
마오이스트 내전	20
연방 민주 공화제	22
새로운 선교 환경	25
개종 금지법 강화	26
자민족주의의 대두	28
합법적인 기독교 단체 등록 불가.....	30
교단주의의 가속화	31
요약	32
 제 3 장 바람직한 네팔 목회자의 모습.....	34
네팔 목회자의 현실	34
낮은 교육 수준	35
소비주의 대두와 소명 의식의 결여.....	36
교회와 사회 관습의 충돌	37
새로운 선교 환경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	39
성경적 관점	39
정의	40
구약 성서에 나타난 목회자	40
신약 성서에 나타난 목회자	42
목회적 관점	43
목회자에 대한 정의	44
목회자의 역할	44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46
성령 충만한 목회자	47
비전을 제시하는 목회자	47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목회자	48
성경의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	50
네팔의 문화를 이끄는 목회자	52
요약	53
 제 4 장 바나바 훈련.....	54
역사	54
성경적 근거	55
창세기 12장 1-3절: 너는 복이 될지라	55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56
누가복음 11장 5 - 8절: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달라	56
사도행전 11장 23-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57
핵심가치	57
코이노니아	58
코이노니아의 사전적 의미	58
코이노니아의 성경적 관점	58
바나바 훈련의 코이노니아	59
미션: 사명	59
사명의 사전적 의미	60

사명의 성경적 관점	60
바나바 훈련에서의 사명	61
멀티플리케이션: 증식	61
증식의 사전적 의미	61
증식의 성경적 관점	61
바나바 훈련에서의 증식	62
목적	62
훈련 과정 및 실제 적용	63
구성	63
일정	63
훈련 대상	64
훈련 과정	65
1단계 여주동행	65
2단계 기도 사역	66
3단계 세계 비전	68
4,5단계 성령 사역 및 동적 영성	69
6단계 코이노니아	70
7단계 전도 여행	71
바나바 훈련의 적용	73
개인	73
가정	74
교회	75
바나바 훈련 평가	76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들의 상황	77
문화 배경에 따른 평가	77
적절한 훈련 방법의 고려	79
훈련 내용의 적합성	81
요약	83
제 5 장 네팔 선교 환경에서 바나바 훈련의 발전적 실천 방안	84
개인 영역에 대한 제언	84
목회자로서 기본 자질 점검	84
사회 문화 이해	85
성경과 지식의 함양	87
교회 영역에 대한 제언	87
존재 전도-공적 사역	88
소그룹 공동체 강화	89
교회의 비전과 가치	90
훈련 방법에 대한 제언	91
목회 지도	91
교회 개척 운동 훈련	92
요약	93
제 6 장 결론	94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98
------------------------------	----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THE TOP 20 COUNTRIES WHERE CHRISTIANITY HAS THE HIGHEST PERCENTAGE GROWTH RATE.....	24
<표 2> 바나바 훈련 일정표	64
<표 3> 바나바 훈련 개인 적용-여주동행 라이프스타일	74
<표 4> 가정 코이노니아 모임 적용 방법	75
<표 5> 소그룹 코이노니아 모임 WOR-SH-IP.....	76

지도 목록(LIST OF MAPS)

<지도 1> 네팔 지도.....	9
<지도 2> 무구 및 무스탕 지역 지도.....	72

제 1 장

서론

본 장에서는 네팔 선교 환경에서의 목회자 훈련에 대한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연구 목표, 연구 질문,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 과제와 용어를 기술할 것이다.

연구의 배경

선교는 성경의 복음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현장에는 한국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한세선교협)의 추산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으로 169개 국가에 23,331명의 선교사를 파송,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한세선교협 2012:89)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일치한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임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듯 필자에게도 그리고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

히말라야산맥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 네팔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티베트로 향하던 카푸친 수도회(Cappuchin Mission)의 수도사들을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Rongong 2012:21).

네팔은 3억 3천만개의 신들을 섬기는 힌두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힌두교 이외의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자유는 네팔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힌두교의 배경 아래에서 범신론적인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 종교는 힌두교의 범주 안에 있다는 그들의 신념 안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여러 신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신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의 자유이다.

과거 힌두교는 네팔의 국교로써 그리고 사회의 지배 종교로서의 위치를 지난 수 세기 동안 이어왔다. 2008년을 기점으로 네팔의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에서 연방민주공화제로 바뀌며 힌두교는 국교의 지위를 잃었지만, 정치 세력들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지배 종교로서 힌두교가 가지는 이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했다.

필자가 선교사로 네팔에 처음 도착한 2003년의 환경과 현재를 비교하면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네팔 교회는 이렇듯 변화하고 있는 네팔 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행여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복음의 진리를 바꾸어 전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다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것은 네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돕고 이끌어 가는 역량 있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네팔의 환경 가운데 필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이하 KEHC) 네팔 선교사로 지난 2003년에 파송되어 현재까지 14년간 네팔 선교사로 거주하며 특히 처음 7년은 네팔 서부지역에 위치한 도티수정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사역하였는데, 이 때 네팔성결교회(Nepal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이하

NEHC)에 속한 서부지역의 목회자들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할 기회를 몇 차례 얻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지 목회자들과 더불어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이때 네팔 목회자들로부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깊고 순수하며 열정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반면에 목회 사역에 대한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고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을 목양하는 개인의 목적들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 역시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만난 목회자 대부분이 사역을 위한 정규 신학 과정이나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열정과 믿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었고, 몇몇 목회자들은 낮은 계급과 카스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 농사나 장사 등 생업을 겸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여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목회 사역의 전부인 경우도 있었다. 하나님의 선교와 비전에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마땅한 훈련 프로그램이나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드물었다. 그러다 보니 매주 토요일에 한 번 드리는 공 예배만으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충분히 이루어 내기에는 부족하였다. 세상과 네팔은 끊임없이 변하여 가고 있었지만, 네팔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는 무관심한 듯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행여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의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Rongong 2012:26).

네팔 교회에서 보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목회자들의 세계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행위의 변화가 19세기 선교 운동의 초점이고 믿음의 변화가 20세기 운동의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세계관의 변화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Hiebert 2010:22). 이와 같은 변화가 네팔 목회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네팔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팔 바나바 목회자 훈련(이하 바나바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최근 네팔은 타인에게 개인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종교법이 시행되며 제한적이던 종교의 자유가 더욱 억압받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네팔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해 왔으며 그리고 하고 있는 전도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네팔은 안팎으로 선교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팔 교회와 성도들은 변화에 맞서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도들을 도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목회자가 네팔 교회에 필요하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 적합한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양성하는 방안들을 바나바 훈련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습을 탐구하고, 이런 관점에서 네팔 목회자 훈련 사역인 바나바 훈련을 평가하고 발전적인 사역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

이 연구의 목표는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훈련을 위한 바나바 훈련이 나아가야 할 바를 찾고, 그를 통하여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이 연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난 14년 동안 네팔의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네팔의 지역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였던 시간을 되돌아 보는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자유가 제한되는 선교 환경의 변화 가운데 네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어떻게 훈련하고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본 논문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네팔의 선교 환경에서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동시에 바나바 훈련이 네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가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의 좋은 방안임을 제시하고 증명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핵심 문제

이 연구의 핵심 문제는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서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 바나바 훈련의 발전적 실천 방안이 가지는 중요성이다.

연구의 질문들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네팔 교회가 놓여있는 선교 환경의 변화와 선교적 필요는 무엇인가?

둘째,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서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셋째, 바나바 훈련의 목회자 훈련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넷째, 목회자 훈련을 위한 바나바 훈련의 발전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의 제한들

이 논문의 연구 효율성을 위한 제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팔 교회의 선교 환경과 선교적 필요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문헌적 연구로 한정한다.

둘째, 네팔 교회의 선교적 환경에서의 목회자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는 바나바 훈련으로 한정한다.

셋째, 바나바 훈련과 교회에의 적용은 네팔의 정통 교회들로 한정한다.

용어의 정의

선교 환경: 네팔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들을 일컫는 말로써 교회의 복음 전파에 영향을 끼치거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네팔 교회: 일반적으로 네팔 내에 있는 기독교 정통 교회들을 뜻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바나바 훈련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로도 사용된다.

바나바 훈련: 네팔 바나나 목회자 훈련의 줄임말로써 NEHC교단 목회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대상은 초교파적으로 교단과 단체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되는 목회자 훈련이다.

코미멀(komimul):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의 앞글자를 합쳐서 만든 용어로서 바나바 훈련의 원리와 지향점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어구와(aguwa): 지도자, 리더 라는 뜻으로 네팔 교회의 각 부서나 모임의 인도자 또는 교회의 운영위원회 회원을 말한다.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풀러신학교를 비롯한 각 도서관의 문헌과 논문 자료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과 바나바 훈련원의 훈련 자료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바나바 훈련의 점검과 평가를 위하여 훈련에 참석하였던 현지 목회자들과 가졌던 토의와 제안을 포함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필요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리소스(E-Resource)의 도움도 얻게 될 것이며 현장에서 사역한 필자의 사역 경험도 연구 방법에 주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요약

필자는 지난 14년 동안 창의적 접근 지역인 네팔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처음 7년 간은 네팔 서부지역의 도티(Doti)군에서 현지 선교 전략의 하나로 세워진 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역했고, 그 후 현재까지 네팔성결교회 소속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다.

네팔 목회자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그들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목회자들 속에 자리잡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비하여 그들의 목회 사역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 훈련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고, 바나바 훈련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목회자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네팔의 선교 환경이 변하면서 네팔 교회는 이전보다 더 준비되고 훈련된 목회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양성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목표, 핵심 문제를 비롯한 개관들을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상황이 되는 네팔의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제 2 장

네팔의 변화하는 선교 환경

본 장에서는 네팔의 변화하는 선교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네팔 개관을 비롯한 네팔의 초기 선교 역사와 새로운 선교 환경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네팔 개관

네팔(네팔어: नेपाल, 영어: Nepal)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1769년 샤(Shah)왕조가 세워진 이후 약 240년 동안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왕정 국가로써 2006년까지 공식 나라 이름은 네팔 왕국(Kingdom of Nepal)이었다. 2006년 4월, 샤 왕조의 마지막 왕인 가넨드라 왕(King Gynendra)이 하야한 뒤 과도정부로 정치 체제가 변경되었으며, 2008년 5월 28일에 네팔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으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고, 2015년 9월 20일에는 연방민주공화국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왕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민주 공화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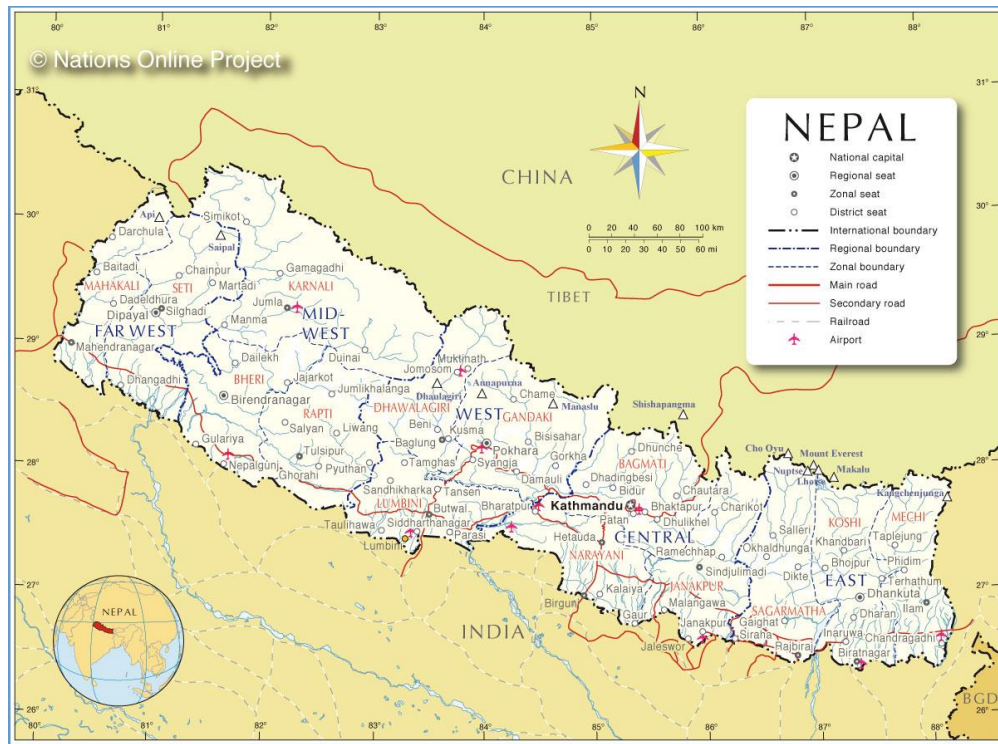
면적과 인구

네팔의 국토 면적은 147,181km²로서 한반도 면적의 약 2/3에 해당하며, 남한보다는 약 1.5배 정도 크다. 네팔은 중국의 티베트(Tibet)와 인도(India) 사이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서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위치한 산악 국가이다. 네팔에는 세계 10대 고봉 가운데 8개가 위치하고 있다(세계지도정보 2011:163). 티베트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쪽에는 만년설로 뒤 덮인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인도 국경과 접해 있는 남쪽의 평야지역에는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평야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국립공원들이

있다. नेपाल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011년 नेपाल 정부의 발표 기준으로 26,494,504명이다(National Report 2011:3).

지리적 위치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नेपाल의 지리적 위치는 다음 지도와 같다.



<지도 1> नेपाल 지도

종족과 언어

네팔에는 125개의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123개이다(National Report 2011:4). 네팔에 분포하고 있는 민족은 크게 인도 아리안계(Aryan)와 티베트 몽골리안계(Mongoloid)로 나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먼저 몽골리안계 민족들이 티베트 지역으로부터 네팔로 내려왔으며, 그 후에 인도 아리안계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정착하였다. 그 밖에 네와르족(Newar)과 같은 토착 민족도 있으나 그들도 역시 고대에 티베트에서 이주해 왔다고 전해진다.

주요 종족으로는 नेपाल의 정치와 언론 등 사회 전반에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리안계 산(山)족인 바훈(Bahun)과 체뜨리(Chettri)로써 전체 인구가운데 약 28.8%를 차지한다. 그 외에 원주민계 평야족인 타루족(Tharu)을 비롯하여 원주민계 산족인 네와르과 티베트 몽골리안계의 산족인 머걸(Magar), 따망(Tamang), 구룽(Gurung), 라이(Rai), 림부(Limbu), 셰르파(Sherpa)족 등이 नेपाल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National Report 2011:4).

이 밖에도 नेपाल과 인도의 국경 지역에는 머데시여(Madheshya)라고 불리우는 종족이 거주하는데 이들은 नेपाल보다 오히려 인도의 문화에 더 친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머히틸리어(Maithili)는 नेपाल어(Nepali)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경제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 속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주권을 잃지 않았던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1인당 명목 GDP는 2016년 국제통화기금의 조사에 따르면 837달러이고, 국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선 이하(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세계지도정보 2011:163).

산이 많은 이유로 국토 면적의 17%만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목초지가 15%로써 두 경지를 합해도 32%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급 농업을 하고 있으며, 주식인 쌀은 평야지역과 아열대, 온난대의 중간 산지, 또는 저지대나 분지에서 경작된다.

네팔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카트만두 밸리, 에베레스트 국립공원, 룸비니 국립공원, 치뜨완 국립공원 등은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네팔인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행사와 숙박업 등은 네팔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네팔 개황:70-71).

정치

네팔의 정치 체제는 연방 민주 공화정이며 현재의 네팔 대통령은 2015년 10월에 취임한 비디야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이다. 네팔의 대통령은 명목상의 직책이며 실질적인 정부 수반은 총리이다. 현 총리는 2017년 6월에 취임한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이다. 의회 구조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이며 네팔의 주요 정당으로는 네팔 의회당과 네팔 공산당 등이 있다.

네팔은 오랫동안 왕이 다스리는 군주국이었다. 네팔의 왕은 비슈누(Vishnu)신의 화신(avatar)으로 여겨졌고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절대 군주인 왕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힌두교 왕정국가인 네팔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된다. 네팔은 외부 세력에 대하여 나라를 개방하지 않았지만, 1951년에 고립주의를 버리고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1962년 새로운 네팔 헌법이 제정된 이후, 절대 군주제 국가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절대 군주제 국가로서 국왕이 통치하고 있던 네팔은 1990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인해 입헌 군주제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이 해에 있었던 제 4차 헌법개정을 통하여 복수 정당제 및 양원제 등의 대폭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고 공직자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등의 뿌리깊은 사회적 문제들은 1996년부터 시작된 마오이스트 공산당(CPN-Maoist)의 세력 확장과 함께 무장 봉기를 부채질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10년에 걸친 내전의 끝은 2006년 4월 당시 국왕이었던 가넨드라(Gyennendra) 왕의 하야 성명과 함께 끝이 났고 왕정은 종식되었다. 그 후 UN이 주도하는 과도 정부에 의해 2008년 5월 28일 제헌 의회의가 소집되었고, 제1차 회의에서 국왕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기로 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1769년부터 239년 동안 이어졌던 왕정 체제가 종식되고 네팔은

공화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1990년에 있었던 4차 개정 헌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되었던 국왕의 권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네팔은 힌두교 국가에서 세속주의 국가가 되었다.

종교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던 유일한 국가였지만 2008년 6월 15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에 따라 힌두교는 국교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현재는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이다. 해외 종교 NGO 단체들의 사회적인 공식 활동은 보장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전도활동 및 개종을 유도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세계기도정보 2011:164).

현재 전 국민의 81.3%가 힌두교이며 불교는 9.0%, 이슬람교 4.4%, 그리고 기독교는 1.4% 정도이다(National Report 2011 2011:4).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2500여 개의 사원과 신전이 있고 1년에 50여 개의 힌두교 관련 축제도 개최하는 등 종교성이 상당한 나라이다.

네팔의 초기 선교 역사 및 선교 환경의 변화

네팔은 인도와 중국의 무역로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의 영향으로 외부세계의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였다. 18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이 후 네팔 정부의 정치 체제의 변화와 함께 부침을 경험한 네팔 교회는 네팔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여전히 네팔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적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지만 지난 세기를 통해 네팔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 이면에는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는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신앙의 자유가 완화된 때에는 거침없는 복음 전도의 깃발을 올렸던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이 있었다(김한성 2017:42).

카푸친 수도회

1707년 2월 21일, 인도에서 티베트로 향하던 상인들과 함께 두 명의 사제가 처음으로 네팔 땅을 밟았다. 이들의 존재는 세금을 징수하던 카트만두 관료들과의 만남으로 알려졌는데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푸친 수도회 소속으로써 티베트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가던 길이었다(Lindell 1997:3). 이들은 3년 전에 로마에서 출발하여 터키와 페르시아를 거쳐 콜카타에 도착하는 항해 가운데 싸이프러스에서 질병으로 한 명이 로마로 되돌아갔고, 두 명은 서아아시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한 명은 콜카타에 병으로 인해 남게 되었다. 모두 6명이 출발했지만, 카트만두에는 단 두명만이 들어왔다. 이들 사제는 몇 주 정도를 머물다 카트만두를 거쳐 1707년 6월 12일에 티베트의 라싸에 도착하여 선교 사역을 펼쳤지만, 항수병과 가난, 배고픔 등으로 인해 4년 만인 1711년에 사역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티베트로 향하는 가운데 지나갔던 네팔 카트만두에 대한 로마 교황청을 비롯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티베트에서 철수한 지 3년 후인 1714년에 인도 네팔 지역의 선교 계획 및 후원 요청을 하였고 1716년에 5개의 카푸친 수도회 선교 본부가 콜카타, 파트나, 카트만두, 라싸 그리고 트롱네에 세워졌다. 당시 네팔은 나라 이름이 아닌 카트만두 계곡 내의 마을이었다고 한다(1997:7). 1734년도에 콜카타와 파트나 등 두 곳의 선교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을 닫았고, 이 후 두 명의 사제가 칸띠뿌(Kantipur), 렐릿뿌(Lalitpur), 벅따뿌(Bhaktapur)이라 불리는 세 왕국이 있던 카트만두 계곡에 머물며 사역을 이어갔다. 사제들은 당시 카트만두를 다스리던 왕에게 시계를 선물하거나 의료 봉사, 사회 봉사를 하며 왕으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의 초창기 사역은 지리와 환경, 물자 부족, 건강과 날씨 등으로 인하여 마치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선교 본부가 세워졌던 1714년부터 카트만두 계곡에는 모두 29명의 카푸친 수도회 선교사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6년까지 머물며 사역을 펼쳤다. 때로는 간첩 혐의를 받아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초청 받아 머물기도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였고, 이 기간에 카트만두에서 숨을 거둔 사제는 모두 6명이었다(1997:17). 카트만두 계곡에 머물던 사제들의 선교 전략은 주로 관계 맺기였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간단한 일들을 도왔고, 문자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사회 봉사 활동도 하였는데 특히 사이가 나빠진 부부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기도 했으며, 사띠쁘러타¹ 제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¹ 사띠쁘러타 Sati or Suttee 남편이 죽었을 때에 아내를 남편과 함께 화장하던 풍습 ([https://en.wikipedia.org/wiki/Sati_\(practice\)](https://en.wikipedia.org/wiki/Sati_(practice)))

노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카트만두 계곡 내의 왕국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였다. 많은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9쌍의 부부에게 결혼 주례를 하였으며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지만 크리스천이 되면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1997:24).

제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의 결과로 1737년 11월 18일에는 벅파벨의 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공식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국 내에 전염병이 돌기라도 하면 늘 검은 곳을 입고 있었던 사제들의 책임으로 의심되었고 긴 수염과 검은 모자를 쓰고 있던 이들은 모습은 종종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였다(1997:29). 선교의 자유는 있었지만, 힌두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종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었고,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영향을 주는 관계이므로 개인이 회심하는 것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97:30).

네팔 초기 선교의 문을 열었던 카푸친 수도회의 사제들은 환경의 어려움과 힌두교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전력함으로써 후에 네팔 교회가 태동하는 전기를 마련하여 놓았다.

절대 왕정제

네팔은 국가 형성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언어, 종교, 카스트 등과 같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지배계층들은 힌두교에 바탕을 두고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변별적인 범주로 간주하지 않았다(박정석 2014a:43). 통일 왕국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소왕국들이나 부족들의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은 네팔이라는 통일된 국가 체제 아래 통합되어야 했다. 뿌리트비 나라얀 샤(Prithvi Narayan Shah)왕은 네팔을 통일한 후 힌두교를 통하여 각각의 부족들을 자신들의 카스트 힌두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이것은 모든 종족을 산스크리트화(Sanskritization)²하는

² 산스크리트화는 네팔어를 사용하고 힌두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힌두화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작업의 일종이기도 하였다. 샤 왕조의 지배 아래로 편입된 네팔 내의 각 부족은 지배층의 명령과 권위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힌두 문화에 접목하게 된 형태도 있었으나, 반대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범신론적 성격을 가진 힌두교의 특징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종족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박정석 2014b:32).

샤 왕조가 시작한 산스크리트화는 라나 가문의 독재정치 아래 1854년 제정된 '물루키 아인'(Muluki Ain)이라 불리는 시민법으로 굳어졌다. 물루키 아인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을 '힌두 카스트'라는 하나의 체제로 포괄하려는 지배층의 의지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서, 물루키 아인에 따라 네팔의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그들의 인종과 민족, 문화와 종교와는 상관없이 모든 종족을 네 개의 카스트 체계 속에 편입시켜 지배 세력을 공고히 했다(박정석 2014a:33). 힌두교를 국가 지배 체제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샤 왕조는 그들의 통일 왕국에 힌두교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힌두교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들의 고유한 관습은 차별되고 억압되었다. 특히 샤 왕조가 카트만두의 말라 왕조들을 점령할 당시 카트만두에 거주하고 있던 카푸친 수도사들이 영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였고 영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전쟁의 결과는 말라 왕조의 멸망이었고, 편지를 보냈던 카푸친 수도사들은 간첩의 죄목을 쓰고 샤 왕조가 건설됨과 동시에 모두 추방되었다(Perry 1993:9).

이후 네팔은 자신의 영토 주위에 담을 세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고, 이와 맞물려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 역시 누구에게도 네팔로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고립 정책을 1816년부터 근 130년간 유지하였다(Lindell 1997:41). 네팔 정부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이든지 인도인, 또는 자국민이든지 상관없이 직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특히 네팔 정부가 기독교에 대하여 이와 같은 강경한 정책을 펼친 이유는 첫째, 정치적인 이유로서 영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종교적인 이유로서 범신론적 힌두교를 국가 종교로 신봉하는 그들에게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는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Perry 1993:12).

이 시기는 네팔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암흑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네팔 교회의 태동이 준비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네팔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은 북인도와 네팔 동쪽 국경에서 주로 거주하며 네팔의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절대 왕정과 힌두교 외에 다른 종교를 선택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들은 네팔 밖에서 네팔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 네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찾아온 선교사들 역시 국경 지역에 머물며 다양한 선교 단체를 조직하였고, 이 지역에 학교를 세워 공부를 하기 위해 네팔에서 넘어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들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이들은 나중에 초기 네팔 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821년에는 인도의 세람포 콜리지(Serampore College)에서 네팔어로 신약성경이 번역되었고, 이후 네팔 최초의 안수 받은 목사였던 경가 뿌러사드 뿌러단(Ganga Prasad Pradhan)에 의해 1914년에는 성경전서가 네팔어로 번역되었다(Barclay 2009:190). 비록 당시 네팔의 문맹률이 98%에 달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네팔로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네팔 기독교인들은 국경 근처에서 네팔로 성경과 신앙 서적들을 들여보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때로는 몰래 국경을 넘어 네팔로 들어가 마을을 순회하며 전도하기도 하였다.

요약하자면 이 시기의 선교 환경은 힌두교 왕정 하에서 네팔 교회의 기초가 닦여지던 시대였다. 성경 번역과 신앙 서적 등을 통한 교회의 반석을 놓고, 국경 전도와 순회 전도로 복음을 전파하며 조금씩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 선교 단체들을 통하여 네팔 기독교 초기 지도자들이 세워졌지만, 근본적으로 자생적인 교회의 태동이 이루어졌고, 거대한 힌두교의 물결 속에서 네팔 교회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교회"로 뭉쳐 있던 시기였다.

입헌 군주제

20세기의 전반부 50년 동안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며 영국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던 네팔 출신의 고르카(Gurkha) 군인³들은 외부 세계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온 고르카 군인들을 비롯하여 외부 세계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네팔의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Perry 1993:66).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물러나며 인도는 1947년도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인도에 머물며 큰 정치적 변혁을 경험한 네팔 사람들은 10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라나(Rana)"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조국에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폭력적, 비폭력적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였고 인도에 머물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이 결성된 시기도 이때였다(1993:67). '네팔 의회당'의 도움으로 라나 일가로부터 100년간 잃어버렸던 정권을 되찾은 트리부반(Trivhuban) 왕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였고 왕권을 되찾도록 도운 정치인들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여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과도 정부를 수립하였다(Rongong 2012:41). 그리고 추방되었던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네팔 기독교인들이 돌아와 본격적인 네팔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네팔 교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그룹은 다음과 같다.

첫째, UMN(United Mission for Nepal), NEB(Nepal Evangelistic Band)와 같은 외국의 선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주로 병원과 학교, 지역 개발 등의 사회사업을 통해 네팔에 정착하였으며 선교사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의 사업 계약을 맺어 네팔 곳곳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하거나 현지 교회를 세우는 등의 일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존재로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Barclay 2009:191).

둘째, 고국에서 추방당하였던 네팔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다. 1952년에 인도에서 돌아온 데이빗 무키야(David Mukiya)가 포카라 람갯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네팔의 공식적인 첫 교회로 기록되었다. 이후 1954년에는 박타풀에서, 그리고

³ 고르카 혹은 구르카 용병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1814년에 있었던 네팔-영국과의 전쟁에서 그 용맹함이 알려져 이후 영국이 자국의 군인으로 이들을 고용하며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1956년 경가 뿌러사드 뿌러단(Ganga Prasad Pradhan)의 손자인 로버트 꺼르탁(Robert Katthak)에 의해 가네솔 교회(Gyanesol Church)로도 알려진 네팔리 이사이 먼덜리(Nepali Isai Mandali)가 세워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인도 케랄라(Kerala)의 도마 선교회를 통해 서힉 대령(Colonel. Sahib)에 의해 부떨리 서덕 교회(Putali sadak Church)가 세워졌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다지만 여전히 몰루키 아인 시민법에 따라 네팔에서는 개종과 회심 등이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포교 활동 및 선교 활동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선교 단체들은 사회 사업을 통한 존재 전도의 형식으로 그들의 거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외국 단체들의 사회 사업은 네팔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사회 사업을 통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지금도 네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기독교는 사회 사업을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회 사업 단체들이 직접적인 교회 개척과 운영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지만, 이들의 종교 배경과 개인의 신앙은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이들의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세워진 초창기 네팔 교회들은 외국 선교사들과 단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 네팔 교회는 네팔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스스로 충당하였다. 네팔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로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네팔크리스찬펠로우십(Nepali Christian Fellowship, NCF)이라는 하나의 단체에 속하여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했다(Barclay 2009:192).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흥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이 시기의 네팔 교회의 특징과 선교 환경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인도에서 온 선교사들도 함께 연합하고 있었다. 둘째, 네팔의 국가 발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네팔 연합선교(United Mission for Nepal, UMN)의 사회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생겼고, 네팔 성도들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교회는 운영되었다. 세 번째, 개종 금지법에 따른 네팔 정부의 계속된 핍박과 사회로부터의 외면은 네팔 교회를 더욱 굳세게 해주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네팔 민중들의 반정부 시위는 네팔 정부가 기독교를 더욱 압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네 번째, 이 시기에 젊은이들의 개종이 많았다. 특히 가족 단위, 부족 단위의 집단 개종도 일어났다. 다섯 번째, 고르카 군인으로 나갔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을과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였고, 문호의 개방으로 인도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네팔어뿐만 아니라 네팔 내의 다양한 종족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 출간되기 시작하였고 네팔 고유 찬양이 만들어지고 외국 찬송이 번안되어 불리기 시작하였다. 복음의 상황화로 이전까지 일요일에 드려지던 예배가 이 시기부터 네팔의 휴일인 토요일에 드려지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네팔의 여느 사회 모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녀가 구분하여 앉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 모습은 지금의 네팔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네팔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 병 고침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네팔의 전통에 맞는 찬양과 예배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Barclay 2009:193).

입헌 군주제는 1990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네팔 전역에서 일어났던 1차 시민운동의 결과에 따라 당시 국왕이던 비렌드라 국왕이 1990년 4월 6일 다당 민주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종료되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였거나 전도나 세례 집례등의 이유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던 60명의 크리스천들이 풀려났으며 기소상태에 있던 200명의 기독교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되었다(Barclay 2009:192).

이 시기의 네팔 선교 환경의 특징들을 요약하자면, 오랜 기간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시간이 지나간 후 잠시 찾아온 복음의 자유를 놓치지 않고 사회사업 등의 다양한 전도 전략과 외국 선교사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네팔 사람들에 의한 독립적인 교회 운영, 그리고 신유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네팔의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가 이 시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겉옷만 입은 힌두교 전통주의 정치 구조였던

판차얏트(Panchayat)⁴ 제도 아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과 사회의 차별이 있었음에도 नेपाल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은 시기이기도 하였다.

마오이스트 내전

마헨드라 국왕에 의해 1962년부터 실시되었던 판차얏트 제도는 민주적 참여와 선거에 의한 대표자 선출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들의 정치 참여를 배제한 제도적 민주주의에 불과하여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며 नेपाल의 일반 민중 등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고 정치적 의식이 성장하여 가면서 사회적으로는 카스트 제도와 정치적으로는 판차얏트 제도 아래 눌러져 있던 사회 문화적 다양성 및 대조적이고 모순적인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상층 카스트 위주의 힌두 왕국에서 नेपाल의 다양한 종족 집단 및 종교들은 사회 주류문화에서 배제되었고 차별을 받고 있었다. 마오이스트 봉기는 상층 카스트 힌두 중심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반발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종족 집단과 사회 하층민들의 저항과 맞물리어 일어나게 되었다.

1996년 2월 13일 푸스파 꾸말 다할(Puspa Kumal Dahal)이 이끄는 नेपाल 공산당 (Communist Party Nepal Maoist, 이하 CPN-M)이 서부 नेपाल의 루쿰(Rukum) 및 롤파(Rolpa) 지역에서 경찰서를 무력으로 공격하며 10년간에 걸친 인민 전쟁(People's War)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수상이었던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에게 왕실의 특권 폐지, 신헌법 공포, 수력 및 전기에 관해 인도와의 조약폐기 등을 포함한 40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마오이스트 봉기를 통하여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표는 봉건주의와 전제주의를 타파하고, 빈곤과 소득 불평등, 종족 차별과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특히 왕정 타파를 주요 목표로 삼으며 이들은 힌두교에 대한 반대 감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다(박정석 2014c:147).

⁴ 판차얏트 Panchayat नेपाल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 기초 단위의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नेपाल에서는 왕의 지방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지배계층의 종교이자 계급주의와 카스트의 상징인 힌두교를 배척하면서 마오이스트들은 힌두교의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소를 죽여 식량으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혹자는 교회가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오이스트의 봉기 과정에서 교회의 지원을 받았으며 사회 평등과 계급 타파를 내세우던 이들에게 힌두교로부터 종교적 억압을 받고 있던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마오이스트들은 카스트 제도와 계급 사회의 불합리한 처우에 처해 있던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무력으로 해방하고자 하였고, 기독교인들은 돈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개종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The Rising Nepal: Maoist and Christianity 2017.12.22 접근). 실제로 마오이스트가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행동을 취한 것은 없다. 그러나 네팔 마오이스트의 이념 변화에 따른 교회의 영향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들이 신봉하는 공산주의가 유물론적 사고관에 근거한 종교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반해 네팔의 마오이스트들은 힌두교적이지도, 무신론적이지도 않아 네팔 교회의 선교에 크게 위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김한성 2017:51). 오히려 러메스 커뜨리(Ramesh Khatry)에 따르면, 네팔 정부가 마오이스트들과 인민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네팔 교회는 정부의 방해받지 않고 성장을 하였다고 한다(Barclay 2009:192).

인민 전쟁이 계속되면서 의회 민주주의와 입헌 군주제를 지탱하던 사회 중간 층이 붕괴하였다. 의회가 해산되고, 지방 선거가 취소되면서 왕은 주요 정당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인 정국 운영을 이끌었다(박정석 2013a:92). 마오이스트의 항쟁 목적이 초기의 중국형 일당독재 체제를 세우는 것에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연방 민주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마오이스트들은 네팔 의회당을 비롯한 지금까지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정당들과 협력하여 네팔 왕정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연합하게 되었다. 2006년 4월 6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국왕이었던 가넨드라(Gyanendra) 왕은 4월 24일 자정에 하여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김한성 2017:56). 마오이스트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일부 세력들은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외국의 선교 단체와 기독교인들이 마오이스트를

선동하여 왕을 물러나게 하고 네팔의 국가 체제를 세속주의로의 변환을 유도하였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연방 민주 공화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왕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다당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박정석 2014c:156). 그리고 네팔 교회와 성도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에 개정된 헌법 19조에는 종교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항목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공식적인 재단 등록이나 권리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자신이 종교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었지만, 개종에 대한 금지는 여전히 최고 6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기독교 신앙의 이유로 핍박을 당하거나 전도하였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았다. 네팔 정부에서는 네팔 사람들의 개종이 외국인들의 돈과 물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교사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Khatry 1997:302).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오히려 네팔 교회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초창기의 외국 선교 단체는 교회 개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팔 교회 위에 어떤 리더십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네팔교회는 네쇼널처치스펠로우십인네팔(National Churches Fellowship in Nepal, NCFN)을 결성하여서 한 지붕 아래에서 자립, 자전, 자치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Lindell 1997:302). 그러나 1970년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 교단이 네팔에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네팔에는 수많은 외국 교회의 교단이 물밀 듯 들어오게 되었고, 지교회나 가정 교회 형태로 카트만두와 네팔 곳곳에 버섯처럼 자라고 있던 교회들은 각 교단 산하로 흩어지며 분리되게 되었다. 게다가 교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를 받게 되면서 네팔 교회 내에는 어느새 교단주의, 물질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1997:303). 이전의 네팔 교회에서 보이던 자립, 자전, 자치와 함께 외국 선교사나 단체들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한 우산 아래 있었던 네팔 교회의 모습은 어느새 외국의 자본에 의지하게 되어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고 그리고 교단주의가 팽배해진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

2008년 5월 28일, 네팔은 공식적으로 입헌 군주제가 종료되고 연방 민주 공화국이 되었음을 선포하였다(김한성 2017:56). 이것은 네팔이 더 이상 힌두 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임을 합법적으로 선언한 것이기도 하였다. 세속화는 네팔 정치의 주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 변화는 종교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네팔 정부는 2008년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힌두 왕국이었던 네팔이 지금까지 굳게 닫고 있던 문을 열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젠 길거리나 큰 상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네팔 교회들도 교회 이름을 교회 건물에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교회 지붕이나 외부에는 교회임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내어 걸기 시작하였다.

지난 2011년에 실시된 네팔 인구 및 주택조사(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1)에 의하면 네팔 땅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는 26,494,504 명이며 이 가운데 기독교인은 375,699명이다. 네팔 교회는 뿌리트비 나라얀 샤 왕의 명령으로 카푸친 수도회의 사제들과 함께 카트만두 계곡을 떠나야 했던 54명의 성도에서 2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37만 명의 성도들로 성장하였고,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현재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 1>

**THE TOP 20 COUNTRIES WHERE CHRISTIANITY HAS THE
HIGHEST PERCENTAGE GROWTH RATE**

(God Report 2013: <http://blog.godreports.com/2013/09/the-top-20-countries-where-christianity-is-growing-the-fastest/>)

Rank	Country	Continent	Christian AAGR	Years to double	Majority Religion	Percent Christian 1970	Percent Christian 2020
1	Nepal	Asia, South Central	10.93%	6.6	Hindu	0.1%	3.8%
2	China	Asia, Eastern	10.86%	6.6	Non-religious	0.1%	10.6%
3	United Arab Emirates	Arabian Peninsula	9.34%	7.7	Muslim	5.9%	12.9%
4	Saudi Arabia	Arabian Peninsula	9.27%	7.8	Muslim	0.3%	4.6%
5	Qatar	Arabian Peninsula	7.81%	9.2	Muslim	4.5%	9.5%
6	Oman	Arabian Peninsula	7.62%	9.4	Muslim	0.5%	4.6%
7	Yemen	Arabian Peninsula	7.09%	9.1	Muslim	0.0%	0.2%
8	Mongolia	Asia, Eastern	5.96%	12.1	Buddhist	0.3%	2.0%
9	Cambodia	Asia, South-eastern	5.87%	12.3	Buddhist	0.5%	3.6%
10	Bahrain	Arabian Peninsula	5.49%	13.1	Muslim	3.9%	7.9%
11	Benin	Africa, Western	4.85%	14.8	Christian	18.1%	47.8%
12	Burkina Faso	Africa, Western	4.81%	15.0	Muslim	9.0%	24.8%
13	South Sudan	Africa, Eastern	4.67%	15.4	Christian	22.7%	63.8%
14	Bhutan	Asia, South Central	4.60%	15.7	Buddhist	0.3%	1.1%
15	Mali	Africa, Western	4.54%	15.9	Muslim	1.4%	3.8%
16	Brunei	Asia, South-eastern	4.49%	16.0	Muslim	5.8%	14.1%
17	Guinea	Africa, Western	4.44%	16.2	Muslim	1.3%	3.8%
18	Kuwait	Arabian Peninsula	4.26%	16.9	Muslim	5.1%	9.2%
19	Singapore	Asia, South-eastern	4.12%	16.3	Buddhist	7.8%	21.7%
20	Turks and Caicos Islands	Caribbean	3.97%	18.1	Christian	99.5%	91.6%

새로운 선교 환경

2015년 4월 25일에 일어났던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2015년 9월, 지난 6년간을 끌어오던 연방 민주주의 헌법 제정이 몇 번의 연기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제헌 의회를 통해 마무리되었다. 이 헌법에는 네팔이 세속 국가이며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음이 명시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을 개종시키거나 개종 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기록되었다(김한성 2017:61). 이 법안은 입헌 군주제가 종식된 후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 제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던 네팔 교회에 적잖은 충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구체적인 형사법까지 제정되었고 이 법안은 2017년 10월 16일 비디야 데비 반다리(Bid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을 얻게 되었다.⁵

대통령의 승인 이 후 많은 인권 단체가 개정된 종교 법안으로 인하여 종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힌두교를 제외한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역사 이래 힌두교는 정부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 왔으며 힌두교에 바탕을 둔 사회 체제를 바탕으로 정부는 그들의 집권 영향력을 공고히 하여 왔지만 네팔의 초기 기독교는 이와 같은 힌두교 배경의 집권 체제에 어떤 위협을 가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었고, 선교 초기 네팔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있었던 핍박은 힌두사회에 직접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한정되어었다. 그러나 연방 민주 공화국으로의 체제 변화에 따라 크고 작은 종족들이 각자의 이익과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저마다의 문화적 고유성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배 계층들의 국가 사회 장악력이 약화되는 결과와 함께 네팔은 전 국민들을 하나의 국가 아래에 두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이 와중에 몇몇 정치인들은 네팔을 다시금 힌두 왕정 국가로 선언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민주주의를 맞본 국민들이 다시금 주권을 왕의 손에 돌려주고자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마당에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교였다. 특히 인민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네팔의 정치 체계가 힌두 국가에서 세속 국가로

⁵ Accessed 2017-10-16, <http://kathmandupost.ekantipur.com/news/>

바뀌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네팔 교회는 사회 지배적 종교인 힌두교에 이제는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최종 승인된 네팔 헌법 26조 3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네팔의 국민들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종교를 위해하거나 혹은 개종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Nepal Constiution 2015 2015:22). 국민 각자는 개인의 종교를 선택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종교를 바꾸도록 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시 한번 네팔 정부는 그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힌두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네팔의 새로운 선교 환경은 다음과 같다.

개종 금지법 강화

네팔 정치 및 힌두 주류 사회에서는 개종의 문제를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힌두교는 네팔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문화적 배경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종은 네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문제로까지 여기고 있다. 특히 네팔과 같은 힌두 문화권이며 정치, 경제, 종교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네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도의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도에서의 개종에 대하여 진기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신앙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정체성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당연한 헌법적 권리라고 믿지만, 주류 공동체인 힌두교도들, 특히 힌두 민족주의자는 모든 인도인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힌두 문화와 전통을 핵으로 하는 공통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힌두교도들이 개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종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기존 신앙에 대한 폄훼가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인도인에게 필수적인 의무인 전통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진기영 2015:68)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17년에 새로 개정된 네팔 헌법은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는 허락하고 있지만, 타인을 개종시키거나 시키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격히 금지하며 어길 경우 형사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내려지는 처벌이 따름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누구라도 네팔의 고유한 민족 전통을 훼손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네팔의 문화 전통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종 금지법이 최근에서야 새롭게 제정된 법은 아니다. 힌두 절대 왕정제가 끝나고 입헌 군주제가 도입된 1990년에 제정된 첫 헌법 19조에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개인의 종교에 대해 고백하고 실행"할 자유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개종할 경우 3-6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형사법이 함께 발효되었다(Barclay 2009:192). 이 법에 따르면 네팔의 개종 금지법은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존재하여 온 법이었다.

개종 금지법은 비단 기독교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힌두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는 보호받아야 하고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이슬람교도가 불교도를 개종시키려는 행위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개종 금지법이 왜 기독교인에게 유난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힌두교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네팔 사람들에게 있어 기독교는 외국 사람의 종교이며,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소를 먹는 사람들의 종교이다. 이것은 곧 종교적인 이유와 함께 문화적으로도 소를 죽이거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 네팔 사람들의 전통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그들의 전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또한, 1990년에 선언된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 이후 물밀 듯 들어온 선교사 및 선교 단체들과 함께 빠른 성장을 보이는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과 영향으로부터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종 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도 네팔 사람들에게 있어 개종은 단순한 종교를 바꾸는 것을 떠나 전통 가치와 문화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하여 본인이 속한 가족 공동체로부터 외면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다.

정치적 격변기의 시기를 보내며 네팔 교회는 네팔 정부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성장을 거듭했지만 네팔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교회의 성장이 눈에 띄게 이루어 지면서 기독교는 점차 정부와 외부 세력의 강한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개종에 대한

네팔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게다가 연방 민주주의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조차 기독교인의 직접적인 전도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에 네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 주어졌다.

자민족주의의 대두

네팔은 축제가 많다. 년 중 이어지는 축제들은 각 종족의 종교적 특성과 함께 그들의 전통을 나타내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힌두교를 배경으로 하는 네팔 전체 국민들이 즐기는 대규모 축제가 있는가 하면, 종족별로 진행되는 축제가 있다. 그리고 두 형태의 축제 모두 가족과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매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있는 네팔의 국민들이 가장 크게 즐기는 더싸인(Dashain) 이나 띠할(Tihar) 같은 축제 기간에는 뿔뿔이 흩어졌던 온 가족이 모여 그들의 힌두신에게 제사하고 종교적 의식을 치루는 것은 오랜 시간 이어온 가문의 전통과도 같다. 그러므로 가족들 가운데 홀로 예수를 믿는 경우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 의식에 본인 만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워 의식을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결정을 내리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족이나 부모에게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한 가족이나 공동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그들이 치러야 할 전통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불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따망 부족의 마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 부족이 오래 전부터 믿어온 불교 전통 문화에 대하여 교회가 반감을 품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시도하였던 이야기이다. 따망 부족이 속한 티베트 몽골리안 계열의 종족들은 대체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고 있다.

네팔의 헬렘부히말(Helembu Himal) 근처 샤부루(Siabru) 는 전통적으로 라마 불교가 강한 마을이다. 이곳의 불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라마불교 경전이 적힌 룡따(Lungta) 라고 하는 알록달록한 깃발을 세운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적인 방법에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들은 라마 경전이 적힌 룡따가 아닌 성경 구절을 적은 룡따를 대나무에 매달았다. (Stephen 2000:58)

이 이야기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그들의 종족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 전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도티수정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사역하던 당시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부모와 가족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던 학생들이 주중 수요일 저녁 예배나 토요일 예배를 비롯,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몇몇 학생은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며 믿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사인 축제기간을 맞아 한달 정도 되는 방학 동안 집에 다녀온 학생들은 한결 같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 집에서 부모와 가족에게 해야하는 힌두교 관습에 따른 종교 의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시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 이유였다. 힌두교 경전 바그바드기따(Bagvad gita)⁶에 따르면, 힌두교인은 그들의 더르마, 즉 종교적 의무를 포기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각에서는 힌두교의 모든 종교적 행사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이제 막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도전이다.

연방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정치 체제가 변하면서 네팔은 각 지역, 종족별로 자치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네팔 내의 크고 작은 종족과 각 이익 단체들의 영향력을 키워 주고 자기 종족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민족 중심주의가 네팔에서도 강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네팔의 부족들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외국인의 종교, 타문화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기독교는 네팔의 이와 같은 전통 문화와 같은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⁶ 성스러운 신에대한 노래라는 뜻으로 기원전 3-4세기에 기록되었다.

합법적인 기독교 단체 등록 불가

헌법에 따라 네팔은 세속주의 국가임을 천명하며 모든 종교 단체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 가운데 힌두교는 네팔의 주요 종교로서 그 위치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힌두교의 이러한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단적인 예로 카트만두와 지방의 크고 작은 도시에 있는 힌두교 신전들은 모두 네팔 정부의 법적인 보호 아래 있고, 모든 공공 기관에는 그 기관에 맞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팔의 모든 공립 학교에는 힌두교 교육의 신인 사라스와띠(Saraswati) 신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일 년에 한번 모든 학생과 교사가 사라스와띠 신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린다.

이에 비하면 기독교는 종교 단체들에게 주어진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권리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네팔 현지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네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려야 할 재산권이나 생존권이 종교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 예로 네팔 내의 각 신학교는 힌두교 외의 종교를 가르치는 교과 과정을 이유로 교육부에 정식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학사과정의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네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신학교의 건물과 대지 등 재산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나 교회와 직접 관련된 국제 및 국내 NGO 단체들 또한 정부에 공식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나 재산 보호 등의 실제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공식 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그리고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특히 교회나 신학교 등 기독교 재산을 등기할 때에 법인 명의를 아닌 개인 혹은 서너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므로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교회나 신학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네팔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통틀어 단지 NCFN(National Churches Fellowship Nepal, 네팔 교회협의회)와 NCCN(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epal,

국가교회협의회)만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체를 제외하면 네팔의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나 교회의 대지와 건물은 종교 법인이 아닌 개인 혹은 두세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때때로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단체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보장이 실제 현장에서는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단주의의 가속화

네팔 교회는 네팔 사람에 의해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된 자생적인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정부와 힌두교의 핍박 아래에서도 교회는 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유지하였고, 오히려 외부에서 주는 핍박은 교회를 더욱 굳세게 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선교 초창기 네팔에 온 외국선교사들은 주로 UMN과 INF와 같은 연합 기구를 조직하여 사회 사업 형태로 네팔 곳곳에서 사역했지만 직접적인 교회 사역에는 관여할 수도 없었고 또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초창기 네팔 교회의 지도자들은 네팔 교회를 이끌어 가는 문제에 대하여 네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적인 권한과 함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오이스트 항쟁 기간 중 정부의 느슨한 관심과 더불어 세속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자유로움은 네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고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교단주의 득세라는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왕정 체제 당시 정부의 감시 아래 네팔 교회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 어려웠던 사회사업 형태 위주의 사역을 해왔던 선교사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직접적인 교회 개척 및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독립적으로 사역하던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허입하면서 선교사들은 자신을 파송한 단체의 지부와 교단을 네팔 교회 가운데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 현지 교단을 구성하여 네팔 교회 안에서 자교단 중심의 사역들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네팔 교회 안에서 교단주의가 득세하게 되면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속하게 되는 교단의 신학, 신조, 교리 등을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교단과의 물질적 이해

관계만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각 교단 역시 직접적인 교회 개척보다는 이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독립교회나 사역자를 만나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보다 자신들의 교단으로 가입시켜 교단의 규모를 키우려는 편리 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팔 교회가 직면하게 된 새로운 선교 환경 가운데 하나는 네팔의 교회들이 예전과 같이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네팔은 힌두교 중심 국가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기독교가 네팔 내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기독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각 교회가 교단과 교파들로 뿔뿔히 나누어 지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네팔 전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 또는 교회가 사라져 버렸다.

네팔의 선교 환경에서 교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진 교회의 모습은 네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요약

이상으로 네팔의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네팔의 초기 선교 역사 및 정치 체제에 따른 선교 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새로운 선교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자리 잡은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산악 국가 네팔은 오랫동안 복음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다. 그러나 카푸친 수도회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이 후 반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힌두 왕정과 입헌 군주제, 그리고 마오이스트 내전을 겪으면서 네팔 교회는 버섯처럼 네팔 곳곳에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선교 초기부터 외국인에 의한 복음 전도가 강력히 금지되었던 지라 네팔 교회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한 나라였고, 외국 선교 단체와는 협력의 관계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동역하는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

네팔은 여전히 사회 각 분야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나라이며 도시와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나라의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면서 네팔 국민들의 정서와 사고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문화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어지던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 왕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얻어냈다는 사실은 네팔 국민들에게 상당한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네팔 사회 각처에서는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바람이 불어 오고 있었지만 종교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종 금지법이 통과되며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고자 하는 시도 조차 위법 사항이 되었고, 자민족주의의 대두로 힌두 문화가 더욱 득세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하나의 교회라는 전통을 이어 왔던 네팔 교회는 교단, 교파주의가 득세하면서 하나의 교회로부터 다양한 교단과 교파로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하에서도 네팔 교회들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들을 법적이고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네팔 사회 안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키워 가기 위하여 애를 쓰며 오랜 왕정과 시민 전쟁 등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뉠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네팔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네팔 목회자의 모습을 제안하기 위해 네팔 목회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을 성경적 목회적 관점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제 3 장

바람직한 네팔 목회자의 모습

지금까지 네팔의 선교 역사와 함께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서 네팔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네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네팔 목회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성경적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자를 정의하고자 한다.

네팔 목회자의 현실

기독교에 대한 억압과 핍박이 정부와 지배 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네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의 연합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놀라운 만큼의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성장하는 네팔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목회 및 신학 훈련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한 훈련된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변화되고 있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 맞춰 네팔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계속하여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목회하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목회자 자원이 부족하였다. 밀려드는 외국 선교 자본에 의해 목회자들의 목회 목표는 성공에 맞춰지게 되었다.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큰 교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되었다. 입헌 군주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연방 민주 공화국 시대가 정착되는 혼돈의 시기에 네팔 정부는 종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기울일 수도 없었다.

눈에 띄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치인을 비롯해 기득권층의 자신들의 지지세력 확충을 위하여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어느 정도 새로운 네팔에 대한 정치권의 밑그림 그리기가 끝나자 그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룬 네팔

교회는 지속적인 기득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물량주의 교단주의가 성장하며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도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네팔 교회의 사명은 지속적인 선교 사명 수행이다. 그리고 계속된 성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훈련된 목회 리더십을 갖추고 네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목회자가 네팔 교회에 필요하다.

낮은 교육 수준

초기 네팔 교회의 목회자들은 정부와 가족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불붙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이 만나본 네팔 교회 목회자들의 간증은 한결같이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과 문화적 배경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생하였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바탕에는 목회자 자신이나 가족들의 병 고침 등과 같은 체험을 직접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후 간증자는 자연스럽게 모임의 인도자가 되고 모임이 성장하여 지역 교회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던 이가 신앙심과 희생 정신으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이다(김한성 2017:156).

그러나 네팔 목회자의 대부분이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다니거나 목회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힌두교를 비롯한 정부의 핍박과 차별하에서 신학교 및 성경학교 등의 설립이 네팔 기독교의 처음 두 세대 동안 원활하지 않았고, 둘째 가난과 저개발에 묶여 있던 네팔에서 교육보다는 노동의 가치가 우선시 되었으며, 셋째 신학 공부를 위해 별도의 재정을 들일 만큼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다. 이들에게 있어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기 위한 교육은 짧은 기간의 성경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며 간접적으로 배우는 성경 지식이 전부였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네팔 목회자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또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사역의 이론과 기술들이었다. 네팔의 목회자들에게 있어 신앙과 희생 정신은 강했지만, 성경과 신학 그리고 목회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교회 사역은 가르침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어려웠고 균형적인 신앙도 가지기 힘들었다(2017:157).

최근에는 교회 내의 젊은 층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신앙과 말씀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신앙 지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목회자들이 신학과 성경에 있어 준비되고, 배워야 하는 필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신학교나 목회자 훈련 등은 대부분 수도인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이나 산간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있어 지식의 습득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소비주의 대두와 소명 의식의 결여

여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네팔에서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명예나 물질의 보상 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목회자가 가난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농사일이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사역과 일을 병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가장인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네팔은 힌두 왕정의 종식과 함께 세속주의가 자리를 잡으며 사회적으로는 소비주의가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네팔 교회 내에도 소비주의와 물량주의가 찾아오면서 신앙과 열심으로 사역하고자 하였던 순수한 사명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고자 찾았던 훈련 프로그램은 후원자를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며 불신자를 찾아 나섰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후원하여 줄 선교사 또는 교단을 찾았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쳤던 목회자들은 후원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역을 홍보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본인이 진행하는 네팔 바나바 훈련 프로그램에도 해마다 2-30여명의 목회자가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순수한 동기로 훈련에

임하지만 이들 중 몇몇은 훈련 기간 중 혹 훈련이 마친 후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교회의 필요나 건축, 개보수 등에 대하여 후원을 요청하는 부탁을 해오곤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체 네팔 목회자의 모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네팔 교계에서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후원할 교단과 후원자를 찾아다니는 목회자에 대한 자기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네팔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네팔의 한 목회자는 자신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목회를 시작하고 7년 만에 카트만두에 건물을 소유하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여전히 네팔 대다수의 목회자는 순수한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기대하는 목표가 다를 뿐 이미 많은 목회자를 이끄는 목적이 더 이상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아닌 물질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충분히 훈련되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서기 이전에, 모교회 목회자나 주위의 동료 목회자로부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모으는 방법을 먼저 접하게 된다. 네팔에는 과거에 비교하여 많은 신학교가 세워지고 각종 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한 단체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교육과 훈련의 기회는 목회자로 하여금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과 목회기술의 습득이 아닌 오히려 인맥을 넓히고, 성공을 향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네팔 교회의 부정적인 한 단면이다. 이것은 네팔 교회가 처한 다양한 외부 환경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네팔 교회의 내부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이며 네팔 교회가 처한 현실의 모습이다.

교회와 사회 관습의 충돌

힌두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전통과 문화를 바꾸는 것과 같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에 대하여 반감을 품게 되는데 반대로 힌두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들이 힌두 문화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중 한 가지 예가 매장에 관련된 문제이다. 힌두교나 불교도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 화장을 한다. 기독교인은 화장에 대하여

힌두교의 관습이라 하여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네팔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기독교인이 사망했을 경우 매장지를 찾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쟁점화 되고 있다. 특히, 매장을 하지 않는 이웃 힌두교도와 불교도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네팔의 힌두교들에게 있어 동물의 사체뿐만 아니라 시신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 시신은 어떤 경우라도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곧장 가까운 강이나 물가로 가서 화장을 한 후 남은 재를 흘려보내야 한다. 화장 후 강가에 자신의 재를 흘려보내는 것은 힌두교인에게 있어 윤회를 이루는 중요한 의식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에게 있어 화장하여 강물에 남은 재를 흘려보내는 것은 다시금 힌두교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에 기독교인에게 있어 매장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의미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신을 묻어야 하는 매장지는 곧 힌두교인들에게 부정한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매장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애써 구한 매장지는 마을 주민이나 힌두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네팔 목회자와 교회는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대지를 구입하기도하고, 때론 독지가의 헌물에 의존하기도한다. 그러나 힌두교를 비롯한 비신자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매장을 고집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덧붙여 자신들의 마을 근처에 부정한 매장지를 마련하는 것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문화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네팔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매장과 화장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와 함께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살펴본 후 성도들로 하여금 화장과 매장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보다 현실적인 이유에 관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팔 정부나 사회에 대하여 매장지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리 환경이나 오염된 강가 등을 깨끗하게 치우는 정화 사업과 같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와 힌두교는 종교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들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힌다. 그러나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서 봉사과 섬김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선교 환경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팔 교회는 1952년 포카라에 람갓 교회가 최초로 설립된 이후 현대까지 갇은 껍박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이런 네팔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김한성은 "가정 교회, 하나의 교회, 어린 교회, 전도하는 교회" 등 네 가지를 들었다(김한성, 2017:154). 이와 같은 네팔 교회의 특징들 가운데 "어린 교회"는 아직 여러모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전통적으로 문맹률이 높은 네팔의 상황에 비추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에 의지한다.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않는 목회자들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배웠기에 목회자들의 지식 수준은 낮은 편이다. 네팔 교회가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성경과 신학의 지식을 얻고, 목회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네팔의 새로운 선교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성경적, 목회적 관점에 고찰하고,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자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적 관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나타난 목회자의 모습과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의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목회자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임택진은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곧 일반 소명(*general call*)과 특수 소명(*specific call*)이다. 일반소명이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임택진 1974:51)"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소명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일반 소명 외에 특별히 목사로서 받은 특수 소명이다. 목회자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이다. 소명을 받은 목회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 목회자로서의 사명은 에베소서 4장 12절과 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것도 목회자의 사명이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네팔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 사역에 임하기보다는 평신도의 삶에서 출발, 자연스럽게 교회의 리더 혹은 목회자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따라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본인이 속한 모임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로서의 사명보다 개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목회자

구약성서에서 목회자는 '목자'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목자는 구약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직업으로서 양이나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파생된 목회자의 뜻에는 다스리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이상섭 2004:37).

구약에 나타난 목회자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모델의 유형은 제사장과 예언자적 목회자상이며 구별된 자와 전달하는 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제사장: 구별된 자

제사장은 아브라함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거나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백성들을 위한 회개와 치유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백성을 정결케 하는 책무도 제사장의 몫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셨듯이 백성들도 옳은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공동체로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끄는 것이 제사장이었다.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던 제사장의 사역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목회적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밴후저 2016:80). 또한, 백성들과 가장 많이 대면하고, 삶의 문제와 신앙에 대해 상담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역을 감당하였다(강대영 2005:48).

예언자: 전달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였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자체를 백성들에게 나타내었다(밴후저 2016:8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말할 사람을 예언자로 세우셨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뿔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렘 1:9-10)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예언자가 전해도 백성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언자의 임무는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현대 교회에서는 율법보다 말씀을 더 우위에 두는 종교 개혁 전통의 흐름 아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적 목회자상 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목회자 상을 더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거부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자적 목회자의 모습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목회자

신약성서에 나타난 목회자의 의미는 헬라어 포이멘(ποιμήν)을 번역한 것으로서 "보호한다"는 어근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구약의 목자 개념과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이상섭 2004:37).

신약 시대에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구약에서의 목회는 율법을 가르치고 수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통한 목회자의 모습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리스도: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은유하고 있다.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일반적인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으로 구체화되었다.

신약 시대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양 떼를 위해 피를 흘리신 선한 목자의 새 언약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이 율법과 화해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면, 신약의 목회자들은 양 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한다(벧후 2:16-18).

사도들: 진리의 전달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신약에서의 목회자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과 같이 진리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이다. 사도들은 곳곳에서 예수를 선포했고,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 전념하였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고린도 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말했다. 바울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다. 말로 하고, 말을 통해 실행된 사역이었다(벧후 2:16-18). 그러나,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바울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에게도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임할 것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 말하였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4).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또 다른 목회자 모습은 진리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목회자이다.

목회적 관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목회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이어서 목회자의 실제적인 역할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목회자에 대한 정의

목회적 관점에 있어 목회자는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한 사람을 안수하여 목회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행하는 특별한 섬김을 위해 구별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사역에 임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목회적 이해로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바울은 이러한 목회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전 4:1)"로 말하고 있다(밴후저, 2016:49).

목회자의 역할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 본 목회자의 역할들은 다음과 같다.

말씀 선포

목회자의 핵심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1-2)

목회자의 말씀 선포는 성도들을 든든히 서게 한다. 특히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 목회자의 목회적 사명이며 역할이다. 특히 목회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선포하는 말씀이 목회자 자신의 삶에서 실체화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성도들의 삶의 바뀌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민즈 1997:304).

전도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막 16:15),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행 5:42).

건강한 교회 성장은 전도로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장하여야 하고, 성도라면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한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목회 지도력이란 성도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이 그들의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민즈 1997:307). 전도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첫 번째 작업이므로 목회자에게 있어 전도는 중요한 역할 수행이다.

제자 양육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과 함께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1-13)

그러므로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 안의 모든 일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은 자라 가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들이 자라 갈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자 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요 21:17). 목회자는 양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임으로써 교회가 자라게 하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먹이는 양의 성품을 알아 세밀하게 살피며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곧 목회이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분별하여 성도들 각자가 주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배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진리를 말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같은 진리를 교회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상징적 행동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뱀후저 2016:281).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십일조와 기도, 순종의 모습으로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며 목회자에게는 이 모임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음서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며 바른 지침을 알려주셨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3).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뱀후저 2016:283).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목적은 한가지이다.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지역교회로 모이는 것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네팔의 선교 환경에 필요한 목회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임명되고 목회적으로는 선한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도들과 세상을 향한 사도바울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라는 고백과 같이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제임스 민즈 1997:15). 성경적,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선교 환경에 처한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

첫째, 목회자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 목회 사역은 영적 사역이므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여야 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눅 4:14). 제임스 민즈는 능력 있는 목회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 부딪히는 어려움에 관하여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의 말을 인용하여 말했다. "진짜 문제는 개인이거나 단체거나 상관없이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육신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데 있다"(민즈 1997:140).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목회자이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시대를 거치며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네팔 교회의 선교 환경도 최초 복음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목회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목회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야 할 인간적인 테크닉의 문제가 아닌 영적 전투라는 사실이다(민즈 1997:140). 사도바울은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였다(고후 10:3-4).

목회자에게 있어 성령 충만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도구가 된다(이상섭 2004:29). 변화하고 있는 선교환경에 놓인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는 어떤 기술이나 사람의 지혜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 묵상과 쉬지 않는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한 목회자이다.

비전을 제시하는 목회자

목회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전이란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개인의 야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의 분명한 청사진이다. 한국 바나바 훈련원의 설립자인 이강천은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금언을 남겼다. 한 사람의 인생의 크기가 어떠한지는 그 사람의 비전에 따라 좌우된다. 비전은 목표를 분명히 해 주고, 방향을 잡아주며 주어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해 준다(이상섭 2004:30).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 교회의 목회자는 개인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에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목회자의 비전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목회자의 비전을 따라 교회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인이 만난 네팔 목회자들에게 종종 비전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교회 건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런데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목회자가 바라보는 비전이 교회라는 건물에 매여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건축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라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지금의 네팔 선교 환경 가운데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가야 한다. 목회자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 네팔 교회의 미래와 성장과 부흥의 환상을 보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이끌어 가야 한다(양창삼 2004:35).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곧 비전을 이루어가는 목회자이며 이러한 목회자가 지금의 네팔 교회에는 필요하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목회자

목회자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스스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고 하셨다. 즉, 진정한 사랑은 양들을 위해,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 그 본을 보여 주셨다.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희생적인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사랑과 함께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섬김이다. 목회자는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나 교역자를 뜻하는 영어단어인 "minister"가 "작은"이라는 뜻의 라틴어 minus에서 유래하였고, 주인을 섬기는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양창삼 2004:192). 따라서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섬기는 일에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역설적인 이야기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가 아닌 섬기는 자로 오셨다(막 10:45)는 사실을 기억하면 설령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라 할지라도 섬김의 일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네팔 사회에는 카스트(caste) 제도⁷라는 독특한 문화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 내의 일종의 계급 제도로서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나누어 상하 계층으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하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인의 일을 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곧 덕이고 선이다. 반면 상위계층의 사람은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의무를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카스트 제도는 일종의 적폐이다. 네팔에서 법적으로 이 제도는 이미 없어졌지만⁸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청산해야 할 구습을 없애는데 앞장서는

⁷ 카스트 제도, '카스트'라는 용어는 15세기 중반에 인종, 가문, 종족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가스타(casta)'에서 유래되었고 '동족결혼, 세습, 특수한 생활방식에 의해 특정되는 작은 그룹'으로 정의되며, 카스트 제도는 두드러지게 힌두교와 관계있는 사회계급의 한 종류이다(<https://legalinsightsblog.wordpress.com/chapter-2>).

⁸ 네팔에서 카스트 제도는 1962년 마헨드라 국왕 통치 당시 국민 평등을 가로막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삭제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Caste_system_in_Nepal#The_caste_system_today

모습은 굳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삶에서 실천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섬기는 목회자는 어떤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해야 할까?

첫째,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한다. 섬기는 일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랑으로 해야 한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이다. 셋째, 섬김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대상뿐만 아니라 섬김의 일에서도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섬김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만일 기쁨이 없는 섬김이라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양창삼 2004:194-198).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Stanley Jones)는 마하트마 간디에게 인도에서 기독교가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때 간디는 스탠리 존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처럼 살아가고, 기독교의 가르침 대로 살아가며 기독교의 중심인 사랑을 강조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대답했다(스탠리 존스 2005:216-218). 네팔 선교 환경에 필요한 목회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 내의 성도들과 네팔 사회의 불신자들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성경의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

목회자가 성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 먼저 진단을 한 후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공부하여 병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사역은 영혼의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목회자에게 말씀연구는 필요한 작업이고, 평생을 걸쳐 이루어가야 할 작업이라는 의미이다. 만일 목회자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이것은 마치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의사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정확한 연구를 통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2)고 말하였다.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뿐만 아닌 모든 목회자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며 충고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딤후 3:16-17). 목회자가 성경을 모른다면 그로 인한 불행함은 성도들에게 오롯이 전해진다.

네팔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신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목회자들이 자라온 배경과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힌두교 국가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있었고 더구나 신학교까지 제대로 설립되어 있지않던 상황에서 성경을 배울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네팔은 신학교가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여 선교사나 단체, 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었기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이미 일선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현장의 목회자들에게 시간과 재정, 게다가 일정 이상의 학력 조건을 요구하는 신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향력 있는 설교는 지혜와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설교할 때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려 주었다. 지식으로만 보자면 아볼로의 지식이 절대 낮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차이를 결정 지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성경에 대한 전문성이다. 그리고 이 전문성은 성령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 한 구절을 연구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과 깊이로 해석한 말씀이 전파될 때 심령과 골수를 쫓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팔의 문화를 이끄는 목회자

문화라는 단어는 한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과 정서적인 반응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고유한 풍습과 전통, 그리고 삶의 양상을 가리키는 단어이다(민즈 1997:34).

네팔 선교 환경의 가장 중요한 담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와 힌두교라는 거대한 두 문화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힌두교는 네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통 문화를 상징한다. 이 전통은 가족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웃과는 협동의 관계를 상징하며 국가적으로는 네팔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한다. 반면 기독교는 서양인의 문화를 대변하고, 네팔의 전통 문화를 공격하며 가족과 공동체의 협력을 깨뜨리고 개인주의화를 이루는 문화이다. 그뿐만 아니라 네팔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며 일어나고 있다.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은 네팔 젊은이들의 사고를 바꾸고, 더불어 길이 닿지 않는 마을에서도 조차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 네팔의 목회자들은 전통과 서구, 과거와 현재 문화들의 연속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네팔의 사회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목회자에게 있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네팔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복음을 전하되, 그들의 문화와 수준에 맞추어 복음을 전달하여야 한다. 네팔은 다신교 다문화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방법은 네팔의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울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아텐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타협점을 찾은 것이 아닌 그들 문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였다(민즈 1997:35). 힌두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팔의 민족들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맞는 목회전략을 세 목회자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사역하는 지역 을 수 있어야 한다.

요약

이상으로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 네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관점에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모습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때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계획과 뜻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의 사물을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네팔의 선교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네팔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이 아니다. 네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여전히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목회자는 이러한 네팔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다음 장에서 바나바 훈련에 대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네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바나바 훈련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제 4 장

바나바 훈련

이 장에서는 바나바 훈련의 역사와 성경적 근거, 그리고 핵심 가치와 목적 그리고 구조와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양성에 바나바 훈련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

1993년 3월 4일 대한민국 대전시 근처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교국장을 역임한 이강천 목사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몇몇 목사들의 모임으로부터 한국 바나바 훈련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한국에서 바나바 훈련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바나바 훈련에 참석하였던 해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선교지에서의 바나바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네팔도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써 한국의 바나바 훈련을 모태로 하여 바나바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바나바 훈련은 네팔성결교회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Kathmandu)를 비롯, 덩거디(Dhangadhi), 부뜨왈(Butwal), 치트완(Chitwan) 지역에서 모바일(mobile) 훈련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바나바 훈련의 시작에 앞서 한국 바나바 훈련의 내용과 형식을 네팔의 목회자들과 네팔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상황화 작업의 시간이었다.

이후 2014년 10월에 카트만두 남동쪽 산자락에 위치한 마따띠르타(Matatirtha)에 훈련원 건물을 마련하고, 2015년 4월에 그해 12월까지 제1기 바나바 훈련이 진행되었고, 2016년에는 제 2기 바나바훈련이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네팔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

1,2기 바나바 훈련을 마친 현지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 지역 교회의 리더들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 훈련이 진행되었다.

성경적 근거

바나바 훈련의 훈련 철학은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바나바 훈련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바나바 훈련의 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바나바 훈련의 철학과 성경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창세기 12장 1-3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지라. (창 12:1-3)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실 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염두에 두셨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과 같이 네팔의 선교 환경 가운데 목회자 개개인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네팔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눅 4:1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역의 시작과 전개를 이루어 가셨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눅 3:21-22),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으며(눅 4:1),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로 찾아 가셨다(눅 4:14)(김득중 1993:253).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무대였다. 이곳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시며 다시 한번 그의 사역의 근원과 목적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다(눅 4:18-19).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지성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차원을 넘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여야 한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원과 힘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5-8절: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달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눅 11:5-8)

한밤 중에 찾아 온 친구를 위하여 이웃집 부자에게 찾아가 떡 세 덩이를 구한 사람은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여기서 가난한 주인은 우리 목회자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배고픈 친구는 복음이 필요한 네팔의 영혼들이며 부자 이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간청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한다. 밤중과 배고픔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나타낸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네팔

목회자들의 상황을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에서 비롯된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개인의 연약함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해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11장 23-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행 11:23-24)

레위족 태생의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소유자로 인정적이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다(두란노 1993:46).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삶 전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삶을 살았다. 회심한 사울이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를 등용시켜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바울과 갈등을 빚었던 마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복음 전도의 협력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품에 더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이끌었던 목회자였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바나바의 삶으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면과 격려의 힘을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

핵심가치

바나바 훈련의 핵심 가치는 코미멀(Komimul)이라는 단어로 대변된다. 코미멀이란 단어는 바나바 훈련에서 지향하는 교회 성장의 3가지 원리로서의 코이노니아(koinonia), 미션(mission),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multiplication)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바나바 훈련의 고유 단어이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코미멀의 원리에 따른 소그룹 중심의 목회전략을 배우게 된다. 이것은 변화하는 현재의 네팔 선교 환경에서 네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의 모습 가운데 일부로 네팔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코이노니아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코이노니아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를 살펴보고, 바나바 훈련에 있어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코이노니아의 사전적 의미

코이노니아(Koinonia)란 말은 회합적 토착 용어로서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 물질의 공동 소유나 사업상의 동업자나 신과 인간과의 교제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회합화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회합 토착어인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채용하여 선교현장과 이상적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강사문 1994:252).

코이노니아의 성경적 관점

구약의 코이노니아

우리가 사용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 따른 어휘는 아니지만, 사상적으로 그 뿌리가 구약성서에도 흐르고 있는 개념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귄의 관계는 구약성서의 주된 주제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태초에는 하나님과 창조된 사람이 틈 없는 사귄의 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는 생명의 본질이었다. 태초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으며 사람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있을 때 사귄의 일치를 이루며 창조 세계의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신약의 코이노니아

신약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는 신약성서의 지배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 됨,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신약 성서에서 헬라어 코이노니아(Koinonia)는 확일적인 의미의

표현보다는 사용된 각각의 구절에서 다르게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상 명사 *Koinonia* 는 친교, 교제, 사귄, 교통, 참여, 도움, 동정, 연보, 구제 등으로 번역되었다. 동사형 *Koinonein*은 공급하다, 나누어 받다, 같이 나누다, 주고받다 등으로 번역되었다. 보통 명사 *Koinonos*는 동료, 참여자, 친교자, 가담자, 동역자, 동반자, 동지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조경철 1993:32).

바나바 훈련의 코이노니아

바나바 훈련에 있어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자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바나바 훈련에서 추구하는 코이노니아를 통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1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21절)" 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 됨을 본질로 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교회는 개개인의 집합으로 모자이크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생명을 주고 책임지는 조화로운 한 몸을 이루는 살아 있는 코이노니아로서의 유기체이다.

바나바 훈련에서 강조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한 영적인 나눔과 교제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는 코이노니아이다.

미션: 사명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사명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사명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관점을 살펴보고 바나바 훈련에 있어서 사명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명의 사전적 의미

사명 Mi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missus'라는 동사에서 유래하였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헬라어의 '보내다'(α π ο σ τ ε λ λ ω)와 같은 개념이다(방동섭 2010:79).

사명의 성경적 관점

구약의 사명

구약성서에서 발견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창세기 12장 1-3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이 복을 온 세계에 전하고 흘러가게 할 사명적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다(이강천 2011:177).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주어진 사명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다.

신약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이 사명은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도 이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써 곧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다. 덧붙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명을 완수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다.

바나바 훈련에서의 사명

바나바 훈련에서는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됨을 강조한다. 이강천은 "사명으로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그의 한국 바나바 훈련원 강의 중에 수차례 언급하였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고 계신다(방동섭 2010:79).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선교이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살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성도들이 사명으로 살고, 교회가 사명으로 사역할 때에 네팔 교회는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다(이강천 2011:183).

멀티플리케이션: 증식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증식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성경적 관점에 바라보는 증식의 의미, 그리고 바나바 훈련에 있어서의 증식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증식의 사전적 의미

증식의 사전적 의미는 "늘어나다, 늘어나서 많아지다"라는 뜻과 함께 "생물이나 조직 세포 따위가 세포 분열을 하여 그 수가 늘어나다 또는 그 수를 늘려가다" 이다(네이버 국어사전).⁹

증식의 성경적 관점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식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마가복음 4장 26-2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⁹ Accessed 2018.1.12, <http://krdic.naver.com/seo.nhn?id=35486602>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공동체, 곧 교회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써
스스로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씨와 같이 성장하고 번성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튼튼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증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바나바 훈련에서의 증식

교회는 죽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이다(Wagner 1980:89). 따라서
살아있는 건강한 유기체는 생명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공동체 인 교회의
성도는 영적으로 신자를 낳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플리케이션 곧 증식은 교회
성장의 본질이다. 한 명의 새 신자를 인도하여 교회의 새신자부나 양육 담당자로 넘겨
양육하는 차원이 아닌, 전도자가 직접 진한 사랑으로 희생적 헌신을 쏟아 새 신자를
양육하는 것이 증식의 출발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여질 수 있는 것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 구조가 형성되어 소그룹 내에서 양육과 성장에 관하여 훈련해야 한다.

하나의 소그룹 내에서 새 신자를 전도하고 양육하여 그 그룹이 성장하게 되면,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 분할되는 식으로 하면 소그룹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그룹
중심의 전도 방법은 개인 전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하게 하여
소그룹 전도를 통한 증식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목적

바나바 훈련의 목적은 첫째, 네팔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이며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 지역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둘째, 네팔의 선교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네팔 교회와 성도들이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도록 성도들을 도전하고 이끄는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데 있다. 셋째,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가도록 하는 데 있다. 넷째, 코미털의 영성을 통하여 네팔 교회의 성장은 묘책이 아닌 본질에 있음을 깨닫고 이에 바탕을 둔 성경적 목회를 이루어 가도록 돕는 데 있다.

훈련 과정 및 실제 적용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네팔 바나바 훈련의 훈련 과정 및 바나바 훈련의 실제 적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바나바 훈련의 구성과 일정, 그리고 바나바 훈련의 대상을 설명하고 바나바 훈련의 세부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구성

바나바 훈련 강의는 전도 여행을 포함한 7단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담당 선교사가 진행하며 소그룹 모임 및 훈련 진행은 현지 목회자들을 리더쉽으로 세워 진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한국이나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여 네팔 목회자들이 바나바 훈련의 실제적인 결과를 듣고 도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

바나바 훈련 일정은 네팔 달력 기준으로 매년 12월, 즉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시작되어, 네팔 달력으로는 다음 해 8월에, 태양력으로는 12월경에 마치게 된다.

네팔의 농번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훈련 시 3박 4일 동안 카트만두에 위치한 바나바 훈련원에서 집중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때 지방에 거주하는 목회자는 카트만두로 와서 바나바 훈련원에서 함께 머물며 훈련을 받는다. 카트만두에 거주하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동일하게 바나바 훈련원에서 머물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매 훈련 프로그램에는 말씀 묵상, 강의, 10/40 중보기도와 소그룹

코이노니아 모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 목회자는 타인의 기도 제목이 적힌 인쇄물을 가지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한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훈련의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바나바 훈련 일정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6:00		기상 및 개인경건		
6:30		아침 예배 및 말씀 묵상 (Q.T)		
8:00		아침		
9:00		묵상 나눔(Q.T Sharing)		
10:00		10:20 경배와 찬양		
		강의 2	강의 4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11:00				
12:00	점심			
1:00	경배와 찬양			
2:00	강의 1	2:20 10/40 기도		
3:00		강의 3	강의 4	
4:00				
4:30	휴식			
5:00	노동훈련			
6:00	저녁			
7:00	소그룹 코이노니아	중보기도	소그룹 코이노니아	
8:00				
9:00				

훈련 대상

본인은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네팔 성결 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으며 현지 네팔 성결 교회 교단과 동역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에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현지 목회자 대부분은 네팔 성결 교회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다. 그러나 다른 교단이나 독립 교회의 목회자들도 훈련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네팔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구와(Aguwa)¹⁰라고 불리는 교회의 리더들이 목회 및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바나바 훈련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구와들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훈련 과정

네팔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나바 훈련 과정은 모두 7단계로서 목회자의 기본적인 영성을 점검하고 계발하는 여주동행, 사랑의 중보 기도 및 전략적 중보 기도를 배우는 기도 사역,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세계 비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사역을 지향하는 성령 사역 및 동적 영성 그리고 바나바 훈련의 주된 철학 가운데 하나인 코이노니아와 전체 훈련의 통합적 적용이라 할 수 있는 전도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위에 언급한 각 훈련 과정의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1 단계 여주동행

여주동행(與主同行)이란,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말씀 묵상과 아침 저녁기도, 그리고 서재 지키기를 하도록 권면한다.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취약함을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과 목회자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 묵상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묵상하며 본문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도전을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것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도록하는 훈련이다.

10 . 어구와 cu'jf 1.지도자 2. 지도하는(네이버 네팔어 사전)

경청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경청은 주의해서 듣고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경청할 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Smith 2016:101).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성경을 주의깊게 그리고 깊이 묵상한다는 의미로써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있어 말씀 묵상은 설교를 준비하며, 개인의 영성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익숙한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이지만 네팔 목회자들에게 있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 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 묵상, 또는 QT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Peterson 2002:122).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님에도 네팔의 목회자들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여주동행의 훈련은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바나바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목회자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묵상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나누도록 한다. 훈련이 마친 후 다음 훈련까지 목회자들은 각자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대부분의 네팔 목회자들에게 있어 혼자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준히 묵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데이닉 조띠(Dainik Jyoti, Daily Light)라고 하는 네팔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한 묵상집을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하도록 돕고 있다.

2단계 기도 사역

우리가 드리는 기도 대부분은 나와 가족을 위한 간구로 채워진다. 이것은 네팔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으로써, 그들의 기도는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비롯한 물질적인 충족에 대한 제목이 대부분이다. 또한, 교회에서 드러지는 기도 대부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가치를 어떤 사역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Peterson 2002:63).

기도 사역은 목회자들에게 목회 사역의 시작이 기도이며 기도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기도의 훈련을 이끄는 과정이다.

기도 사역 단계에서는 중보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와 민족을 바라보는 기도를 훈련하게 된다. 즉,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지닌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단계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배고픈 친구를 위해 이웃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빌어오는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넘어 우리가 배고픈 친구를 위해 사랑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를 통해 일하신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복음 전도자 앵커스 뷰칸(Angus Buchan)은 그의 책 Faith like a potatoes에서 "When men work, they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s(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표현하며 기도의 힘을 설명하였다.

훈련에 참여한 네팔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또한, 많은 목회자가 충분한 공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네팔 사회의 문화적 계급 구조인 카스트의 영향 아래 차별을 경험하는 목회자들도 다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만큼은 다른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는 기도에 오롯이 담겨 있다.

기도 사역 훈련은 목회자들이 나와 가족의 필요만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훈련이다.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목회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하여 사역하는 목회자로 성장하게 된다.

3단계 세계 비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선교사이다. 세계 비전 훈련은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인 모두가 소명을 받은 선교사이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그들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임을 알려 주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우리는 말과 글의 언어적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전달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들은 이들이 회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설득하여야 하지만, 변화는 최종적으로 성령님의 일 하심으로 이루어진다(Hesselgrave 1999:80). 특히 네팔의 선교 환경이 직접적인 전도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변화와 영향력은 전도의 본질이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고 아울러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도 방법이 될 것이다.

네팔 목회자들에게 있어 선교의 의미는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로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네팔 교회는 재정적인 역량의 여부를 떠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26개의 다양한 민족이 한 나라 안에 존재하고, 국민 대다수가 전도 대상자인 힌두교이며 또한 해외에 노동자로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가 다수 존재한다. 인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네팔 사람들이 창의적 접근 지역인 중국이나 중동지역에서 그들 가운데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세계 비전 훈련을 통해, 네팔 목회자들이 선교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법과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였다. 한 예로, 해외 노동자로 출국하는 교회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을 교회에서 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 해외에서 일하며 주위의 다른 네팔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보내야 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 비전 훈련은 네팔 목회자들에게 막연하게 생각하던 선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커뮤니케이터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훈련이다.

4.5 단계 성령 사역 및 동적 영성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사역이 소개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등의 능력 사역이었다.

네팔의 목회자를 포함한 네팔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병 고침이나 기타 체험을 통해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네팔 교회의 부흥에 주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지금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Rongong 2012:26).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성령 사역이다.

네팔 목회자들에게 있어 귀신을 쫓아 낸다든지, 혹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 등은 한국 목회자에 비교하여 익숙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다. 네팔의 많은 교회가 토요일 예배가 끝나고 난 후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위해서 주위의 믿지 않는 아픈 사람 혹 귀신들린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령 사역은 이들에게 익숙한 주제이고 또 실제 사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제이다. 오히려, 필자는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사역의 경험이 적은 관계로 현지 목회자들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된다. 대신 필자는 목회자들에게 성령 사역의 성경적 근거와 이론들을 알려주고 그들의 사역이 성경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더 큰 역사가 있음을 가르치며 함께 배우고 있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바나바 훈련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하다.

또한, 성령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목회자들의 영성이 늘 깨어있어야 함을 가르쳤다. 기독교 영성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며 그 분과 계속적으로 교통하는 것이다(이후정 2001:13).

동적 영성(動的靈性)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살아 움직이는 영성, 깨어있는 영성을 뜻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한다. 본문에서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깨어있는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적 의미를 포함한 네팔어로 표현하기에는 낯설고 새로운 단어이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영성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6단계 코이노니아

바나바 훈련의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주제가 코이노니아 훈련이다. 바나바 훈련과정에서의 코이노니아 훈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훈련을 받는 목회자 간에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도록 하는 훈련이다.

바나바 훈련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훈련받는 목회자 서로 서로가 한 형제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네팔 목회자들은 사역할 때에 겪는 사역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주위에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날 기회가 좀처럼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카트만두에서 진행되는 바나바 훈련에 참석하여 다른 지역에 온 목회자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회복과 교제의 기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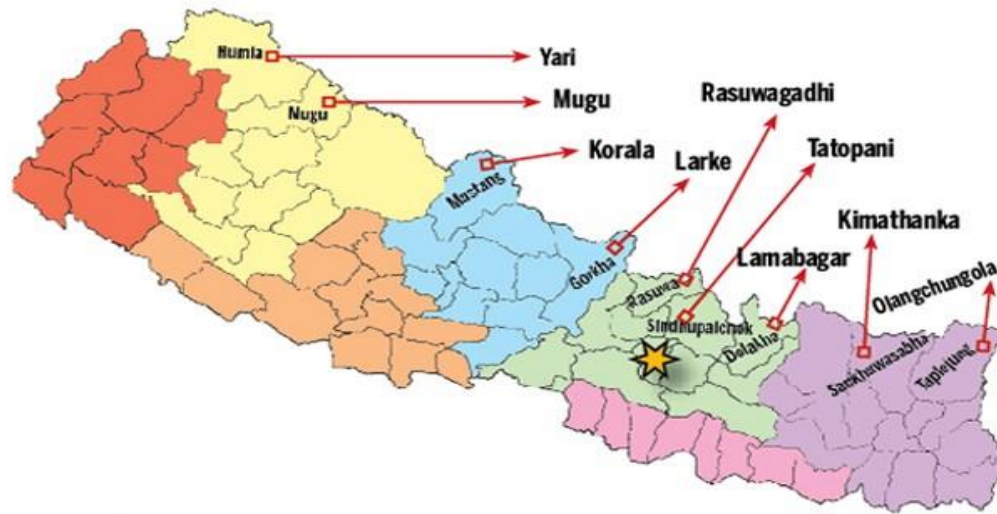
바나바 훈련에서는 훈련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코이노니아 소그룹 모임을 구성한다. 그리고 소그룹 내에서의 충분한 교제와 나눔을 위해 한 그룹의 숫자는 7~8명 정도로 제한한다. 이 그룹은 훈련의 첫 시작에서부터 수료하는 때까지 지속된다. 코이노니아 그룹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목회자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자신과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훈련 초기에는 이 모임이 서로에게는 어색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점차 깊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게 된다. 그리고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인 나눔과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짐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며 깊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게 된다.

7단계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은 바나바 훈련을 통해 배운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보는 시간이다. 한국 바나바 훈련원에서는 전도 여행을 주로 해외의 선교지 가운데 한 곳을 택하여 가고 있다.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그들이 배우고 훈련한 것을 적용하여 보고, 해외 선교에 대한 목회자와 한국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전도 여행 기간 중이라도 함께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계속 이루어 갈 것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네팔 목회자들도 바나바 훈련을 마칠 때 즈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해외로 나갈 형편은 되지 못하여 네팔 바나바 훈련의 전도 여행은 주로 국내의 오지라 불리는 무구(Mugu)와 무스탕(Mustang) 지역이나 훈련받는 목회자의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도 2> 무구 및 무스탕 지역 지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훈련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에게 전도 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임을 알려준다.

국내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네팔에서 오지라 불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첫 전도 여행을 갈 때에는 인도의 국경 봉쇄로 인한 연료 부족으로 버스가 연료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고, 한 목회자는 야간에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길이 좁고 험해 버스로 가는 길은 위험천만하였고, 산간 지역에서 전도하고 돌아올 때에는 무려 12 시간을 걸어야 만 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여행길에서 서로 간에 돕고 협력하여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며 여행 중임에도 여주동행과 기도 사역을 이어가는 훈련,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

사역의 방향성은 목표에서 오며, 목표는 우리의 사역을 명확하게 한다(Smith 2016:123).

그러므로 목회자들에게 전도 여행이 단지 낯선 곳, 새로운 곳을 간다는 여행의 즐거움으로 채워질 수 있겠지만 바나바 훈련에서 전도 여행이 가지는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여행에 참여하는 목회자 개인의 목표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10일간에 걸친 전도 여행이 끝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함께 극복한 것을 나누며 기뻐하는 목회자들을 보며 기대하였던 소정의 목표들이 이루어졌음을 느꼈고,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같이 느낀 경험이었다.

전도 여행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들의 삶과 현장을 방문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지를 나누거나 공공장소에서 복음 선포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처한 이웃을 바라보며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바나바 훈련의 적용

바나바 훈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훈련 내용이 강의실과 목회자의 기억 속에만 남는 것이 아닌 삶과 사역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주동행 훈련을 비롯한 기도 사역과 코이노니아 훈련은 훈련에 참석한 목회자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준다. 아래에서 바나바 훈련을 적용하는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개인 적용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적용이다.

말씀 묵상, 새벽기도, 저녁기도 그리고 서재 지키기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 영성을 유지하여 가도록 한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

바나바 훈련 개인 적용-여주동행 라이프스타일

1	저녁기도	1. 일찍 귀가하라 2. 늦기 전에 저녁기도를 위한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라 3. 일찍 잠자리에 들라 4. 새벽에 기상하도록 하라 5. 새벽기도에 임하라 6. 말씀을 묵상하라 7. 정해진 분량의 독서를 하라 8. 성령으로 사역하라
2	새벽 기도	
3	말씀묵상	
4	서재지키기	

가정

바나바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연습한 코이노니아를 가정에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 혹은 부모님과 함께 가지도록 권면한다. 네팔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이다. 부부간이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대화를 통한 수평적 관계보다는 전달 방식의 수직적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소통의 부재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 코이노니아를 통해 목회자가 아내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가정에서 먼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도록 권면한다. 목회자의 가정이 코이노니아 모임을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가정 코이노니아 모임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가정 코이노니아 모임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

가정 코이노니아 모임 적용 방법

가정 코이노니아 적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한다. 2. 정한 날이 되어 가족이 모이면 가장이 대표로 기도하고 가족 코이노니아 모임을 인도한다 3. 20분 정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중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린다. 4. 가족 구성원이 각 자의 삶을 나눈다. 자녀와 부모 모두 지난 한 주 동안의 감사 제목과 어려움, 또는 즐거웠던 일들을 나누고 각 자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 5. 나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다. 가족 지체의 고민이나 짐을 함께 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온 가족이 끌어안고 사랑의 기도를 드린다. 6. 전체가 나눈 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두사람의 기도제목들을 듣고 기도하도록 한다. 7. 한 사람이 마침 기도를 하고 마친다. 8. 가족이 함께 다과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한다.

교회

네팔 교회는 교회마다 거렐루 성거띠(Gharelu Sangati)¹¹라는 일종의 구역 모임을 가지고 있다. 거렐루 성거띠는 토요 예배를 마친 후 주중에 드리는 예배 모임으로써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 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불신자나 새신자들은 거렐루 성거띠를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가정에서 예배가 진행되므로 교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웃을 초대하기에 유용한 점도 있다. 또한, 거렐루 성거띠에서 시작되어 독립된 지역 교회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 거렐루 성거띠는 네팔 교회 성장의 현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있어 거렐루 성거띠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하는 정도에 따라 목회 사역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¹¹ 거렐루 성거띠(House Fellowship, w/JNn' ;+ult_ 한국의 구역예배와 같은 개념으로 네팔교회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성도들을 지역 별로 나누고, 매일 돌아가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바나바 훈련에서는 소그룹 코이노니아 모임을 거렐루 성거떠에 적용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코이노니아 모임에 있어 사랑의 중보 기도는 질병이나 아픔의 치유를 위하여서 하는 기도이다. 불신자 이웃이나 환자를 초대하여 기도함으로 치유도 경험하고, 이웃을 향한 성도의 사랑도 보여 줄 기회가 된다.

소그룹 코이노니아의 거렐루 성거떠에서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임 틀은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WORSHIP"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 5>

소그룹 코이노니아 모임 WOR-SH-IP

소그룹 코이노니아 WOR- SH-IP		
예배(WORship)	나눔(SHaring)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의 기도로 시작한다. -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로 15-20분 가량 찬양 예배를 드린다. - 찬양 인도자는 미리 준비를 하도록 권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주 설교를 중심으로 받은 은혜와 삶에 적용을 나눈다 - 지난 일주일간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참석자가 돌아가면서 나눈다. - 두 세 사람 단위로 나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한다. - 질병이나 긴급한 기도 제목의 경우 곧바로 기도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이다. - 10/40 창문 지역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네팔 국가와 교회가 속한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 - 한 사람이 마침 기도를 한 후 모임을 마친다.

바나바 훈련 평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행되었던 바나바 훈련을 네팔의 선교 환경에 비추어 평가하며 바나바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바나바 훈련이 이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봄으로써 바나바 훈련을 통하여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바나바 훈련에 실제로 참석하였던 목회자들의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바나바 훈련을 직접 인도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 평가하고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들의 상황

지난 6년간 바나바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는 모두 100명이 넘었다. 다만 평가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바나바 훈련원에서 진행되었던 훈련에 참여하였던 사람으로 제한한다. 훈련 참여자는 네팔 성결교회 산하의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의 어구와, 청년부 리더, 그리고 여성 리더들도 훈련에 참여하였다. 네팔 곳곳의 도시 및 산간지역, 평야 지대 등에서 왔으며 그중 몇 사람은 훈련이 진행되는 카트만두에서 이틀 이상이 걸리는 오지에서부터 훈련에 참여하였다.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과정을 수료한 목회자는 없었으며 단기간의 성경공부 과정을 마친 사람이 소수 있었다. 이들의 일반 학력 역시 몇몇 사람만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초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는데, 크게 나누어 보자면 인도 아리안 계통과 몽골리안 계통의 두 인종이지만 적어도 5개 이상(라이, 머걸, 따망, 체빵, 체뜨리 등)의 각기 다른 부족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 훈련에 참여하였다. 네팔의 지리적 상황과 민족적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다양한 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은 낯설지 않았지만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족이나 지역 단위로 모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의와 소그룹 모임 등 모든 공식 훈련의 진행은 참여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어인 네팔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훈련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네팔어로 쓰고 읽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았다. 중년층 이상의 몇몇 목회자는 네팔어를 쓰는 것이 어려워 오로지 듣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하였다.

문화 배경에 따른 평가

바나바 훈련의 훈련 과정은 한국 바나바 훈련원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한국 바나바 훈련의 배경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상황에 두고 있으며, 한국적 기독교 배경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한국

바나바 훈련의 강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네팔 바나바 훈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팔 교회의 문화적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바나바 훈련 강의안은 복음주의 말씀 중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네팔 바나바 훈련에서도 강의안은 동일하게 사용되되, 네팔어로 번역하여 목회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안 외에 예화나 참고자료는 모두 네팔 목회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화하여 전달하였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하여 네팔 교회의 문화적 상황과 한국 교회의 문화적 상황의 차이의 고려가 필요하였다.

네팔 중부의 산간지역인 다딩(Dhading)에서 참가한 랄 따망(Ral Tamang)목사는 새벽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오전 서재 지키기로 이어지는 영성라이프 스타일 세우기가 어렵다고 고백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네팔 교회에는 한국 교회와 같은 새벽 예배가 없다. 목회자들은 아침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새벽 예배이다. 해가 뜨기 이전에 소나 염소에게 줄 풀을 베야 하고, 우유를 짜야 하며 그 후에는 밭에서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때론 걸어서 이틀 길이 걸리는 읍내에 나가 양식꺼리를 사 오기도 해야 한다. 그들의 방은 음식을 요리하는 부엌이고, 침실이며 응접실이 된다. 서재가 되기도 한다. 네팔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들에게 서재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그려보기란 쉽지 않다. 성경을 제외하면 목회자에게 신앙과 목회에 관련하여 정보를 줄 수 있는 도서가 한정적인 데다가 그마저도 네팔어나 영어로 된 서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랄 목사와 같이 네팔어가 모어(Mother language)가 아니며 책을 읽을 만큼 네팔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중지병(畫中之餅)에 지나지 않는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들의 훈련에 임하는 자세는 성실하고, 열정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는 달리 실제 사역 현장에서 그들이 배운 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카트만두에서 사역하고 있는 비저이 라이(Vijay Rai)목사는 훈련을 통해 배운 중보기도문을 토요예배¹² 순서에 포함하여 활용하느냐라고 묻자 기도 모임은 바나바

¹² 토요예배, 네팔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린다.

훈련을 통해 배운 방법으로 중보 기도를 하지만 토요 예배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비저이 목사가 바나바 훈련을 통해 배운 중보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 더러 모두가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 순서를 넣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저이 목사는 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에서 훈련의 실재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로는 그들이 배우는 바나바 훈련의 내용이 1회의 훈련만으로 그들에게 실제화되고 익숙하여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정형화 되어 있는 그들의 교회 문화나 성도들에게 훈련 내용을 곧바로 적용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변화를 항상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옷이 몸에는 더욱 편하다. 그러나 추위로부터 몸을 더 따듯하게 해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잠시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입어보아야 한다. 한국과 달리 네팔 목회자들에게 있어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모습은 드물다. 또한,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목회자 개인의 교육 수준과 리더쉽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적절한 훈련 방법의 고려

바나바 훈련의 주된 훈련 방식은 집체 교육이다. 한 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훈련 참가자들은 카트만두에 위치한 바나바 훈련원으로 모인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훈련이 이어지고, 이번의 훈련이 마치고 나면 한 달 뒤 또는 농번기 등의 시간을 피해 두 달이 지난 후 다시 훈련원으로 모여 다음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카트만두에 모여서 훈련을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 간의 소그룹 코이노니아 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의 훈련을 일선 사역현장에서 적용하여 보기 위함이다.

네팔은 교통의 발달이 낙후되어 있다. 개인 자가용이나 교회 버스를 이용, 3~4시간이면 훈련장소를 오갈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네팔의 지방 도시들에서 카트만두를 오고 가기 위해서는 대중 교통으로 이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 많다.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16시간이 걸리는 नेपाल 서부의 कञ्चनपुर(Kanchanpur)이라는 곳에서 훈련에 참여하던 꺼런 췌우더리(Karan Chaudhary) 목사는 중도에 훈련을 그만두었다. 목회 사역과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던 그에게 매달 3박 4일의 일정의 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들러야 하는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다. 비단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가난한 시골 목회자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한국에서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로부터 훈련 비용과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नेपाल에서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는 훈련원에서 지원하는 편도 교통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비는 본인 부담이다. 각각의 훈련을 마친 후 사역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습하는 시간으로 주어지는 다음 훈련까지의 기간이 नेपाल 목회자들에게는 오히려 시간과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다.

바나바 훈련은 시청각 교재로 파워 포인트 자료를 활용한다. 매 강의 시간에 강사는 노트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보여주며 진행한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नेपाल어가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에게 그리고 필자나 강사가 नेपाल어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파워 포인트를 이용한 자료가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강의를 진행하는 데에 파워 포인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नेपाल 서부의 헐다뿌에서 사역하는 체뜨러 거르띠(Chettra Gharti) 목사는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들 가운데 비교적 고학력자에 속했다.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탁월함을 보였다. 체뜨러 목사는 필자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바나바 훈련에 필요한 파워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와 빔프로젝터가 없다는 고민을 하였다. 그가 배운 것을 성도들에게 구두로만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바나바 훈련을 마친 목회자들이 본인들의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고자 할 때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배운 방법대로 적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회가 이와 같은 기자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나바 훈련을 비용과 시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카트만두의 바나바 훈련원에서 진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훈련의 질적 유지이다. 즉, 훈련을 위한 기자재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기에 훈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련을 마친 목회자가 자신의 지역교회에서 특히 산간지역 등 낙후된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훈련을 진행,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훈련 내용의 적합성

바나바 훈련은 성도와 교회의 세계관 변화를 기대하는 훈련이다.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의 세계관이 바뀌고, 교회의 목적이 바뀌는 변화를 추구하며 영혼 구원과 공동체를 통한 영적 각성,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신앙의 실체적 변증을 추구한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일선 교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직 성경의 기초지식이나 신앙생활의 주제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에게도 성경이나 신학의 여러 분야에 있어 지식의 수준이 높지 않다.

바나바 훈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전과 사명, 헌신이라는 주제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에 따라 온전한 헌신을 함으로써 신앙이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사명을 갖게 하며 헌신하도록 도전하는 데에는 유익하지만, 성도들의 일상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삼위일체, 성경, 십자가, 구원, 마지막 때 등의 주제나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전도 등의 문제들에 대한 주제는 구체적으로 바나바 훈련에서 다루지지 않는다. 목회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회의 예전 예식을 집례하는 것에 관한 내용도 없다. 바나바 훈련은 이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시작된 훈련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통합적인 목회자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

네팔 서부 덩거디(Dangadhi) 딜 따망(Dil Tamang) 목사는 지방 회장이다. 그는 자신의 교회를 목회함과 동시에 지방회에 속한 목회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다. 때로 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집례하여 주기도 한다. 딜 목사는 본인이 집례하는 예전 예식들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했다. 과거에 다른 선배 목회자들이 하는 대로 본인도 하고 있었다. 네팔은 같은 교단, 같은 지방의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교회마다 다른 방법으로 예전 예식을 행하고 있다.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가 많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바나바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주제나 목회자 개인에게 필요한 예전 예식에 관련된 내용이 전달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네팔의 교회들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성장에 비해 목회자를 양성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시골 목회자가 8학년 정도를 마치고, 1-2주의 성경학교를 마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추가적인 훈련이나 교육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설령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도 이들에게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은 훈련 자료의 부족이다. 네팔에 진출해 있는 선교단체나 교회가 많은 자료를 만들어 냈지만 정작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바나바 훈련은 목회자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소명과 사명을 이어갈 수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딜 목사는 그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에서 42개 이상의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였다. 네팔 교회의 개척방법은 주로 **Satellite** 혹은 **Multisite** (위성형, 다지점형) 모델¹³ 로써 모교회로부터 교회 내의 구역 모임들을 지교회로 독립하도록 하고 모교회가 지속적으로 지교회를 보조하고 동역하는 것이다. 한 예로 딜 목사가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지교회 목회자를 위해 세례예식을 집례하여 주는 것 등이다. 그러나 딜 목사는 지금까지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개척해왔을 뿐 교회 개척을 위한 훈련을 받거나, 교회 개척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역자들 역시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소명에 의한 개척이라기 보다는 때와 장소가 적절히 맞아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다. 목회자의 소명의식이 결여되고, 교회 개척의 목적이 사명이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으로 종종 변질되고 있는 네팔 선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목회자로 하여금 바나바 훈련의 코미털 영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적인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방향과 훈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¹³ Tim Morey 목사가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D.Min 과정을 교수하며 제안한 교회개척의 모델들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두 모델은 **Attractional**(유인형) 모델과 **Relational based**(관계기반형) 모델이 있다.

요약

지금까지 네팔의 바나바 훈련의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적용 및 훈련의 평가를 고찰하였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네팔 교회의 목회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여느 네팔 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이나 처지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바나바 훈련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들을 통해 그들의 교회에 바나바 훈련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 네팔 교회를 향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좋은" 훈련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좋은"의 의미가 그들의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과 길잡이가 돼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개인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훈련을 마친 목회자들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바나바 훈련이 목회자의 개인의 영성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고, 비전과 사명에 대하여 분명한 시각이 형성되었다. 반면,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없었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나바 훈련은 여전히 도움을 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예전과 예식, 교회 개척 등과 관련되어서도 바나바 훈련을 통한 실제적인 제언이 부족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네팔의 선교 환경과 바나바 훈련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바나바 훈련에 필요한 보완점과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제 5 장

네팔 선교 환경에서 바나바 훈련의 발전적 실천 방안

네팔에서 목회자 훈련과 이를 통한 네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그들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팔 교회와 목회자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네팔의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 네팔 교회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사회를 향한 성도와 교회의 다양한 역할이 목회자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된 네팔 교회의 목회자 개발과 신학 발전으로 인한 훈련된 지도력의 부재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장에서는 바나바 훈련을 통해 네팔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성숙시키며 바나바 훈련이 이들의 방식으로 발전하여 가기 위한 제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영역에 대한 제언

개인 영역에 대한 제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서 먼저 목회자로서의 기본 자질 점검과 사회 문화 이해 그리고 성경과 지식의 함양이 바로 그것이다.

목회자로서 기본 자질 점검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침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상으로 보내셨고(출 2:2),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살인 정책의 태풍 앞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도록 섭리하셨다(출 2:5).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풍습을 익히기 위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기 위하여 또 다른 40년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키셨다(신재철 2006:78).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 80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그를 준비시키셨다.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명을 받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영적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 균형을 이루는 영성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목회자에게 있어 영적 균형이란 기도와 성경 그리고 영적 지도의 세 가지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행동이다. 성경 읽기는 이천년동안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에 대한 관심의 행동이다. 영적 지도는 어느 주어진 순간에 내 앞에 있는 특정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쏟는 행동이다. (2002:9)

바나바 훈련에서 개인의 영성 생활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이다. 한국 목회자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좋다. 네팔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매일의 아침저녁 기도시간을 지키고, 바나바 훈련에서 제안하는 묵상집을 활용하여 매일의 성경 묵상을 이어가야 한다. 목회자라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바나바 훈련에서는 목회자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성경 읽기 표를 작성하여 매일, 매주의 분량을 정해 바나바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참가자 전원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또한, 성경을 읽은 것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을 활용, 네팔어 성경 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만일 네팔어 성경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들음으로써 함께 설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 문화 이해

힌두교라는 문화 속에서 네팔의 목회자들을 살아왔고, 살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시간 동안 힌두교의 테두리 안에서 네팔 교회와 목회자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다. 그들을 둘러싼 물과 같은 힌두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역의 대상이며 또한 품어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그런데 네팔교회와

목회자들이 힌두교와 그들의 문화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마치 물고기가 마지막으로 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Fish discover water last)¹⁴.

예를 들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에 대하여 힌두교는 환생으로 이해한다. 네팔에서 목회자들이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에 대하여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환생이라는 의미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같은 문화 속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종종 부딪히곤 한다.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법에 있어서도, 힌두교인들이 매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게 되면 매장지가 그들의 마을 근처에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종교 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힌두교에 대하여, 자민족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네팔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적 배경은 일종의 거대한 집합체의 특징을 가진 문화이다. 이런 환경에서 목회자들이 힌두교를 비롯한 타종교,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독교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힌두교 환경인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스탠리 존스는 힌두교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공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태도를 취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를 서양의 문화나 혹은 이스라엘의 문화로서가 아닌 그리스도로 정의하여 힌두교도들에게 교리나 논쟁으로서가 아닌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그들의 이웃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한 체계로 하라고 충고한다(진기영 2015:212 재인용).

바나바 훈련원은 네팔의 목회자들이 네팔의 문화와 힌두교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습득을 돕기 위한 강좌를 마련하여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목회자들은 분명한 사역의 전략을 각자의 사역 환경에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14 이티오피아 속담.

성경과 지식의 함양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들 가운데 설교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앞선다(맥아더 2011:375).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개인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네팔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대체로 그들이 들은 바에 따라 준비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듣고 기록하였다가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나쁜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비율이 높지 않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에 대한 강좌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것처럼 네팔의 목회자들 역시 사역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게 목회자에게 설교가 가지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설교는 그 토대가 성경이어야 하며 내용은 참된 가르침과 건전하고 실제적이며 풍부한 교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2011:383). 네팔 목회자들이 한 두 번의 성경강좌나 설교 강습을 듣는다고 해서 곧바로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설교가 아닌 자신의 설교를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경 통독 훈련을 진행한다. 개인의 영성 함양을 위해 매일의 성경 읽기를 지속하는 것과 동시에 목회자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한 장소에 모여서 친구와 성경을 통독하되, 성경의 개관을 배우고 가르치는 훈련이다. 이 과정을 마친 목회자들은 성경연구 과정을 통해 성경 각 권의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배우도록 한다.

교회 영역에 대한 제언

교회 영역에 대한 제언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존재전도, 즉 공적 사역에 관한 제언과 그리고 교회 내의 소그룹 공동체 강화, 마지막으로 교회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제언이 그것이다.

존재 전도-공적 사역

네팔 교회의 부흥 이면에는 개인의 신앙 체험과 함께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의 전도 활동이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설득 전도 혹은 선포 전도의 방법이 네팔의 헌법 개정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네팔 교회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

바나바 훈련원은 목회자들에게 비인격적 접근에서 인격적 접근으로 방법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것은 곧 관계 지향 속에서 전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네팔의 문화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아프노 만체 신드롬(Afno manche syndrome)"¹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프노만체 신드롬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즉 전도를 할 때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대에게 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게 할 때 반응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복음은 신뢰있는 사람을 통해 전달될 때에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의 깊이가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지는 않는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전도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이 삶으로 보여지는 실체적 변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일상의 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개인에게 주어진 존재 전도, 인격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회 속에서 공적 영역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실천하여 나가야 한다.

The Federation of National Christian Nepal의 보고에 따르면 네팔 교회 성도의 65% 정도가 카스트 계급의 아랫층인 "덜릿(Dalit)"이라고 한다. 이 계층은 사회 소외 계층으로서 가난과 불평등에 시달리며 주류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계층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과 같이 교회는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을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힌두교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곧 선을 쌓는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적 측면에서 힌두교도들이 당연시하는 일을 교회가 소홀히 한다면 그들 사회속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¹⁵ Loyalty dependant, 내 사람, 내 편 주의로서 공동체 문화가 강한 네팔에서 보여지는 집단주의의 한 특징이다.

네팔은 같은 힌두 문화권인 인도 벵갈루의 연합신학대학(United Theological College)에 있는 기념비에 마하트마 간디와 쉰다 싱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서가 아니라 전체 삶과 봉사로 증거해야 한다.
(진기영 2015:182)

이 글귀는 네팔의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말씀의 삶의 실천은 교회의 공적 책임이다. 사회속에서 교회가 감당하여야 하는 섬김과 봉사는 전도의 수단이 아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

바나바 훈련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입술로서가 아닌 전체 삶과 봉사로 증거하도록 하는 고민을 목회자들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바나바 훈련원은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목회자 훈련, 세미나 그리고 지역 봉사 등을 연합으로 펼쳐가도록 도울 것이다.

소그룹 공동체 강화

모든 네팔 교회의 구조 속에 거렐루 성거떠, 즉 구역모임이 있다. 이 모임의 활용 정도에 따라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기도, 때로는 분열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 바나바 훈련에 참석한 목회자도 이 구역 모임의 인도자로부터 교회의 담임이 된 경우도 있다.

교회의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나바 훈련의 소그룹코이노니아 모임을 제안한다. 코이노니아 모임은 매주 모이는 구역모임을 기존 예배 방식이 아닌 나눔과 중보기도, 사랑의 교제를 핵심으로 한다. 이 모임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불신자를 교회보다 먼저 코이노니아 모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코이노니아 모임에서 새신자 양육을 비롯한 제자 훈련을 진행하며 훈련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바나바 훈련원에서는 새신자와 제자 양육을 위한 교재를 네팔어로 번역, 준비하여 놓았다. 그리고 바나바 훈련의 내용에 따라 제작된 양육 교재를 활용하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하도록 한다. 또한, 교회 내에 자발적인 성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네팔은 아직 여가문화나 자발적인 봉사 문화가 많이 자리잡고 있지 않다. 교회 내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들이 형성되면 그 모임이 곧 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부 등으로 그룹을 나누어 적절한 놀이, 스포츠 또는 취미 모임 등을 구성하고 이 모임에는 불신자도 참여하도록 한다면 전도의 도구가 된다.

교회의 비전과 가치

네팔의 힌두교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왜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매주 토요일 기독교인들이 모여 그들만의 제사의식을 하는데 어떤 신에게 제사하며 그 신은 누구인가 라는 궁금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대답이 교회의 비전이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교회가 비전을 보고 움직일 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각기 다른 취향과 모습을 섞여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엮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네팔 사람들에게 있어 비전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대신에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교회가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한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비전은 아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다. 교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다.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다짐이 담겨있는 것이 가치이며, 이 가치에 따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다.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고 수없이 많은 힌두교의 우상들 가운데 네팔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이다.

많은 네팔 교회가 교회의 비전과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목회자 개인도 목회자로서의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에게 자기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 자기 교회의 비전선언문, 가치 선언문을 함께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훈련 방법에 대한 제안

훈련 방법에 대한 제안은 먼저 목회 지도에 관한 제안과 교회 개척 운동 훈련에 대한 제안이 그것이다.

목회 지도

바나바 훈련을 마친 목회자들이 일선 사역 현장에서 그들이 배운 훈련의 내용들을 적용하는 사례가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평가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목회 지도 사역을 진행하고자 한다. 목회 지도 사역은 바나바 훈련을 수료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바나바 훈련의 영성과 내용을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별로 모여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모임을 가짐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목회 사역에 있어 멘토링을 한다.

그리고 바나바 훈련에 대하여 계속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목회자에게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법, 예전 예식에 관한 지도,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새신자 교육 및 제자 양육에 대하여 코칭하여 줌으로써 목회자들의 목회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한다.

목회 지도는 목회자에게 인간적이며 영적인 격려를 함으로써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이 동역자로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카트만두로 모여서 진행되는 바나바 훈련에 비해 목회 지도는 목회자들의 장소로 찾아간다. 네팔 목회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격려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역인 집이나 그들의 장소로 찾아간다는 사실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크래프트 2002:239). 목회 지도 사역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도를 받기 원하는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아 선별한 후 진행한다.

교회 개척 운동 훈련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야 한다. 성장은 지역교회의 양적 성장 팽창 성장 등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성장은 교회 개척으로 나타나야 한다.

김한성은 한국 선교사들이 네팔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회 개척의 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다. 첫 번째는 직접 개척으로서 선교사 본인이 사역하기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장소 선정에서 재정까지 모두 선교사가 주도권을 가진다. 두 번째는 동역 개척으로써 교회 개척 주체는 현지 목회자이지만, 함께 사역하며 책임을 분담하는 개척이다. 세 번째는 협력 개척으로 개척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현지 목회자가 가지고 선교사는 단지 대지 구입이나 건축에 소요되는 재정만 부담하는 형태이다(김한성 2016:376). 이와 비슷한 형태로 네팔 교회의 개척 형태는 주로 동역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교회가 되는 아마 처치(Ama church)¹⁶의 목회자가 교회 내의 작은 구조인 구역 모임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모임을 초리 처치(Chori church)¹⁷라고 불리는 지교회 형태로 분립 개척한다. 개척된 지교회의 담당자는 모교회의 성도였으나 지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패스터(Pastor), 목사로 불리워지게 된다.

교회 개척의 과정에서 모교회의 담임 목사나 지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게 된 이나 아무런 교육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 또한 지교회를 담당하게될 목회자 역시 검증이나 시험 교육 훈련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모교회 담임 목사의 의중과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한다. 공동체 개념이 강한 네팔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비전 선언이나 사명

¹⁶ 아마Ama는 어머니라는 뜻의 네팔어이다.

¹⁷ 초리Chori는 딸이란 뜻의 네팔어이다.

선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로 삶이 바뀌며 준비되지 못한 사역을 해야 하기도 한다. 그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운 담임 목사의 모습을 대부분이 답습하기 때문에 때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바나바 훈련에서는 1년에 한 차례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모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동역자로서 교회 개척 훈련을 제안한다. 그리고 난 후 계획을 세워 이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하고자 하는 개척자들을 대상으로 사명자로서 교회 개척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개척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은 바나바 훈련을 이수하며 목회자로서의 영성과 자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

이상으로 바나바 훈련이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앞에서 제시한 네팔 교회에서 필요한 목회자의 자질에 비추어 그들의 개인적인 영역과 교회 영역에 있어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네팔의 상황을 고려한 방안들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다양한 상황 아래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만큼 한 개인이나 상황에 집중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에 일반적인 제언들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언들을 통해 바나바 훈련이 네팔 목회자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네팔 선교 환경속에서 그들 자신과 교회를 더욱 성숙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움으로써 네팔 사회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법에 대한 제언은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훈련방안이다. 목회 지도는 네팔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이며 교회 개척은 네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목회자의 기본적인 영성라이프스타일을 세워주는 바나바 훈련과 함께 사역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 지도와 교회 개척 훈련이 결합되면 네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 6 장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 따라 네팔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과 이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나바 훈련을 연구하였다.

네팔의 선교 환경은 객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회의 필요도, 또한 그에 따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나바 훈련만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바나바 훈련사역을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훈련만으로는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교회에 필요에 적합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네팔에서의 목회자 훈련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용 가능한 훈련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바나바 훈련은 목회자로서 기본을 강화해 주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목회자들이 사역할 것을 요구하며, 목회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면에서 바나바 훈련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래는 훈련받는 것으로 결정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샌더스 2004:83). 바나바 훈련은 네팔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을 통해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듯 네팔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네팔의 미래를 위하여 부르셨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면에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바나바 훈련의 약점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필요를 제공하여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 훈련은 향후 전문적인 성경 지식 습득과 전반적인 목회 사역에 관련된 주제들을 포함한 통합적인 훈련을 지향하고자 한다.

바나바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의 과거와 현재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뒤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훈련된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목표 그리고 연구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가 진행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훈련되고 준비된 목회자가 필요한 네팔의 선교환경에서 바나바 훈련은 네팔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상황이 되는 네팔의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네팔의 지리와 경제 종교와 정치 문화를 간략히 서술하고, 네팔의 초기 선교 역사를 통해 네팔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출발을 살펴보고 초창기 네팔 교회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해하였다. 시대별 정치 체제의 변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힌두교와 이를 이용하는 세력 앞에 핍박과 차별이 있었음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네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낸 원동력이라는 배움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선교 환경에 따른 외부와 내부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도전들은 네팔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바나바 훈련이 기여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네팔 목회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하여 네팔 선교 환경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습을 성경적 목회적 관점을 통해 찾아보았다. 지역과 상황과 문화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갖추어야 할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질은 동일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이다. 이것은 필자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도전이었다.

제4장에서는 바나바 훈련에 대하여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바나바 훈련의 역사와 목적, 핵심 가치와 훈련 과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단순히 강의실에서 전달되는 것만이 아닌 목회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활용될 때에 그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바나바 훈련의 평가에 있어서 훈련의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문화 이해이고 두 번째는 상황화이다. 한국에서 시작된 바나바 훈련을 네팔의 목회자들과 진행할 때에 먼저 현지 목회자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추어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 자료의 네팔어 번역, 실례와 예화 등을 네팔의 환경에 맞추어 선택한 것은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열악한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극복하고 훈련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네팔 선교 환경에 비추어 바나바 훈련에 보완되어야 할 발전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개인과 교회 영역에 있어 말씀을 본질로 삼아 삶으로 나타내는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우리에게서 다른 무엇보다도 네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 또한 훈련 방법에 있어 네팔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목회자들의 실제적인 요구에 맞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 있다. 바나바 훈련은 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변화하는 네팔의 선교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잃지 않고 쫓아가기를 기대한다. 복음 전파의 자유가 제한되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한 사람들의 변화가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사명으로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음을 깨닫고 네팔에도 기독교가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전력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마치며 바나바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회자들의 깊이 있는 피드백과 함께 현장 연구 조사에 기초한 목회자 훈련에 대한 분석 평가와 실천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던 아쉬움이 있다. 향후 네팔에서의 더욱 깊이 있는 목회자 훈련의

진행을 위해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네팔에서 그리고 힌두 문화권에서 목회자 훈련에 대하여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강대영
2005 *리더십 그리고 비전*. 서울:한국학술정보.
- 강사문
1994 “코이노니아의 구약 성서적 이해.” *장신논단* 10: 251-271.
- 김득중
1993 *성서주석 누가복음1*. 서울:대한기독교서회.
- 김한성
2017 *한국교회와 네팔선교*. 경기도: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두란노편집
1993 *목회자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두란노서원.
- 방동섭
2010 *선교없이 교회 없습니다*. 서울:생명의 말씀사.
- 박정석
2012 “네팔의 민주화 이후 종족성과 민족주의의 발흥에 관하여-네와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연구* 17(3).
- 2013a “네팔의 민주화와 종족성의 정치(1)- 제 2차 인민봉기 이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18(3): 83-109.
- 2013b “네팔의 민주화와 종족성의 정치(2)-브라만과 체트리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 18권 2호.
- 2014a “국민-국가와 종족 민주주의:네팔 립부 종족을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 19권 2호.

- 2014b “네팔 종족집단의 산스크리트화와 탈산스크리트화 -다사인 축제 거부운동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35호.
- 2014c “네팔 마오이스트의 형성배경 및 마가를 종족운동과의 연계에 관하여.” *국제지역연구*, 17(4): 145-166.
- 2017 “네팔의 연방제 전환과 정체성의 정치-2007년 마데시(Madhesi)봉기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연구* 22(3): 59-87.
- 신재철
2006 *인물로 본 구약 역사*. 서울:쿰란출판사.
- 양창삼
2004 *21 세기가 원하는 크리스찬 리더*.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원종국
2009 *교회의 리더십*. 서울:도서출판 KMC.
- 윤기순
2011 *사도바울 선교와 21세기 한국교회 방향*. 서울:도서출판 목양.
- 이강천
2011 *코미컬, 교회성장 본질이 묘책이다*. 서울:쿰란출판사.
- 이상섭
2004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 서울: 쿰란출판사.
- 이상훈
2015 *리폼처지*. 서울:위십리더.
2017a *리뉴처지*. 서울:위십리더.
2017b *처치시프트*. 서울:위십리더.
- 이승하
2010 *목회자*. 서울:한들출판사.

- 이용원
2005 *21세기 목회학*. 서울:소망사.
- 이후정
2001 *성화의 길 오늘을 위한 웨슬리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임택진
1974 *목회자가 쓴 목회학*.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 조경철
1993 *코이노니아의 성서적 이해*. 기독교 사상, 37(8), 32-46.
- 진기영
2015 *인도선교의 이해 1*.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인도선교의 이해 2*.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 외교통상부
2011 *네팔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남아시아 태평양국 서남아태평양과.
- Berry, Jo
1987 *브리스길라처럼*. 권달천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 Craft, Charles H.
2001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Communication Th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Hesselgrave, David
1999 *선교커뮤니케이션론(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강승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Johnstone, Patrick & Mandryk, Jason
2011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 조이선교회 역. 서울:조이선교회출판부.
- Jones, Stanley
2005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The Christ of the Indian Road)*. 김상근 역. 서울: 평단문화사.

MacArthur, John

2011 목회론(*Pastoral Ministry*). 박성창 역. 서울:부흥과 개혁사.

Martin, John A.

1989 두란노 강해 주석 시리즈 21 누가복음. 이명준 옮김. 서울:두란노.

Means, James E.

1997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서울:나침반.

Peterson, Eugene H.

2002 조용한 목회 혁명. 차성구 역. 서울:좋은씨앗.

Piper, John

2008 열방을 향해 가라(*Let the Nations Be Glad*). 김대영 역. 서울: 좋은 씨앗.

Plueddemann, Jim

2013 범세계적 교회와 선교적 리더십. 서울:한국해외선교회.

Sloan, John

2002 탁월한 헬퍼 바나바. 마영레 역. 서울:가이드 포스트.

Smith, Donald K.

2016 마음으로 만나는 문화간 소통(*Creating Understanding*). 김에녹, 윤조엔 공역.
LA: Books on Creating Understanding.

Vanhoozer, Kevin & Strachan, Owen

2016 목회자란 누구인가(*The Pastor as PublicTheologian*). 박세혁 역.
서울:포이에마.

Wagner, C. Peter

1980 교회성장원리. 서울:생명의 말씀사.

Perry, Cindy

1993 *A Biographical History of the Church in Nepal*. Kathmandu, Nepal : Nepal
Church History Project.

Brunner, Emil
1931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London.

E. Erricson, Samuel
2000 *The Church at Top of the World*. CHRISTIAN TODAY; APR 2000.

Lindell, Jonathan
1997 *Nepal and the Gospel of God*. Kathmandu:UMN.

Khatry, Ramesh
1997 *Church and Mission Relationship In Nepal – Forty years ahead*.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Jul 1997:86, 342; ProQuest Pg 301.

Kehrberg, Norma
2000 *The cross in the land of the khukuri*. Kathmandu: EKTA Books.

Rongong, Rajendra K
2012 *Early Churches in Nepal*. Kathmandu, Nepal:EKTA.

Government of Nepal
2012 *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1*. Kathmandu: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UNDP
2015 *Nepal's Constirution 2015*. Kathmandu: Constiutionproject.

웹사이트

<http://kathmandupost.ekantipur.com/news/2017-10-16/prez-bhandari-authenticates-seven-bills.html>